"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47호 HYUNBULNEWS.COM 2025년 9월 17일(음력 7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밝고 밝고, 희고 또 희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에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 특별전 '성파선예전(性坡禪藝展)-명명백백(明明白白)' 이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파 스님이 9월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함께 전시를 관람했다. '성파선예전' 은 11월 2일까지 계속된다. 〈관련 기사 9면〉
청주=여수령 기자 · 사진=정현선 작가

50돌 진흥원 "세상을 위한 불교" 다짐

9월 8일 다보원서 50주년 기념법회

故장경호 거사 50주기 추모
불교진흥 · 홍포 의지 다져
'불교진흥원 50년사' 봉정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오늘의 한국불교는 자각과 반성으로 일대 개혁의 시점에 다다랐습니다.〈중략〉 이렇게 하여 불교가 바로 설 때 국민정신이 올바로 설 것이며 불광이 온누리에 비칠 때 이 땅, 이 민족이 국태민안 속에 번영·발전하고 나아가 전 세계는 자유와 평화가 이룩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 장경호 거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中

동국제강 창업자이자 불교 대중화를 위한 간절한 염원으로 대한불교진흥원을 설립한 고 장경호 거사 50주기를 맞아 불교의 대중화, 의식의 현대화, 교리의 생활화라는 설립 이념을 되새기고, '세상을 위한 불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추모 법회가 마련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9월 8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대원 장경호 거사 50주기 추모 및 대한불교진흥원 5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BBS 불교방송 상임이사 현민 스님, 이한구 진흥원 이사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서진영 BBS불교방송 사장, 진흥원·불교방송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한구 진흥원 이사장은 "장경호 거사는 평생을 불교 중흥과 사회를 위해 헌신했다"며 "장 거사 님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불교방송과 수많은 포교 기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진흥원은 그간 장 거사님의 유지를 이어 부처님 말씀을 현대적으로 기록하고, 내실화를 다지며, 시대



구상진 진흥원 이사가 〈진흥원 50년사〉를 봉정하고 있다.

변화에 맞춰 불법 홍포에 힘써왔다"며 "이번 법회가 진흥원의 반세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추모사에서 할아버지인 장경호 거사를 '위대한 삶의 길을 보여준 선각자'라고 평가했다. 장 회장은 "쌀 한 톨, 배추 한 포기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그가 1975년 모든 재산을 사회와 불교를 위해 환원한 실천행은 그의 훌륭함을 잘 보여 준다"며 "무엇보다 사람을 최고로 여기며 경영해 임했던 그 뜻은 급변하고 개인화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정신을 금과옥조로 여겨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장경호 거사가 이룬 불교 대중화와 진흥원의 다양한 성과를 일일이 언급하며 그의 삶이 한국불교 발전에 끼친 영향력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저도 총무원장으로 한국불교를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장경호 거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그 깊이와 선구자적 실천에 감명을 받았다"고 술회했다.

앞서 구상진 진흥원 이사는 장경호 거사의 일생과 진흥원의 발전 과정을 정리한 〈대한불교진흥원 50년사〉를 부처님 전에 봉정했다.

대원 장경호 거사는 1975년 일평생 근검절약해 모은 정재 30여 억원을 '불교 중흥에 써달라'는 서한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에게 헌납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불교진흥원을 설립하고 불교방송 탄생의 기초가 마련됐다. 한국불교 중흥에 큰 발자취를 남긴 그는 1975년 9월 9일 타계했다.

〈관련 기사 4면〉

조계종 원로의원에 원산 대종사 추천

중앙종회 제235회 회의서
종법 개정안 등 안건 처리



조계종 원로의원에 통도사 원산 도명 대종사〈사진〉가 추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9월 10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개원한 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원로회의는 원로회의법에 의해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교구별 재적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원로회의 의원 자격은 승납 45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 원로 비구다.

원산 스님은 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년 사미계를, 1968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주지와 조계종 교육원장, 제8교구본사 직지사·제15교구본사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를 역임했다. 2021년 10월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원로의원은 중앙종회의 추천을 받아 원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이와 함께 이날 임시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법계법 개정안 △종단교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 △선학원정상화를위한특별법 개정안 △총림법 개정안 △교육법 개정안 등 8건의 종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다만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개정안과 호계위원을 7인에서 9인으로 증원하는 종헌 개정안은 "관계부서와 긴밀한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는 다수 종회의원 스님들의 의견에 이월됐다.

관심을 모았던 '사찰법 개정안'과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도 이월됐다. 또 중앙종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종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사항을 종법으로 규정하는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가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10일 오전 개원한 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12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앞당겨 하루 만에 폐회했다.

〈관련 기사 2면〉 김내영 기자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쉐본우 사원학교에 5호 완공

국제구호협력단체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와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이 다섯 번째 결실을 맺었다. 양 기관은 최근 미얀마 양곤 사우스다곤 타운쉽 지역에 위치한 쉐본우 사원학교에 정수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에 소개된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기사를 접한 서산 금강사가 600만원을 후원하면서 추진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

이번 정수시설로 쉐본우 사원학교 재학생 400여 명뿐 아니라 교사와 스님들 아울러 인근 지역 4000여 주민들도 일정 부분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사회 전체의 위생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련기사 3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후원문의 : 02-725-4277



여기는 화엄만다라 · 12면
취임 2년 맞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2025 팔관회보조금지원사업
fSW 25
2025 팔관회 명상걸기대회
2025. 9. 27 토요일 오후 6시
북항친수공원
사회_ BTN불교TV 김지원 아나운서
품격과 감동의 지휘 마에스트로 정필윤
건반 위의 시인 피아니스트 윤재웅
오페라의 디바 소프라노 박나래
대한민국 대표 색소포니스트 고민석
황금빛 울림 트럼페터 김형진
예술단체 · 스트리트댄서 백의 BAEKEUI
경품 추첨 및 특별 공연
코지마 안마의자, LG 스탠바이미TV,
다이슨 공기청정기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경품 추첨
경품 추첨
부산이 자랑하는 클래식 합창단 부산솔리스트앙상블 지휘자 정필윤 | 반주자 윤재웅
법음의 맑은 울림을 담은 범어사어린이합창단
주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2025 팔관회봉행위원회 후원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문의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_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400호(양정동, 불교회관) 051)867-0501~3

“종정기관 위원 6년도 총무원장 피선거권 자격 준다”

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 주요 안건

‘선거법 개정안’ 등 잇따라 만장일치
‘비구니 호계위원’ 종헌 개정 이월
‘중앙종회법’ 가결정족수 부족 부결
종정감사특위 위원장에 심우 스님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10일 서울 봉은문화회관 2층에서 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열었다.

호계원장을 제외한 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계위원회·계단위원회·초심호계원·재심호계원 등 각급 종정기관의 위원장을 3년 이상, 위원직 6년 이상 역임하면 총무원장 피선거권 자격이 주어진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10일 서울 봉은문화회관 2층에서 열린 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임시회는 재적의원 77명 중 66명이 참석해 개회한 후 12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앞당겨 하루 만에 폐회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인 명부 열람일을 명부 확정 후 5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가 끝난 즉시 투표지를 봉인하고 봉인된 투표지와 개표록 등 선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선거 직후 중앙선관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선광 스님은 “각 종정기관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모시고 있는데, 위원장을 했다고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오랫동안 활동한 위원들에게는 그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경력에 따른 형평성을 부여하고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을 산중총회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등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방장 추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산중총회법’은 이견이 많은 제8조 개정안을 삭제 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현재 산중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기관지 공고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소집 기일을 50일로 연장했다. 구성원명부에 누락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기재돼 있을 때는 구성원 명부 확정일 전 1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본사주지의 자격에 교육법 1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교역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 본사주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중앙종회에 추천할 총림 방장 후보자의 선출은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 고유 방식으로 하고, 산중 총의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 중앙종회법 제72조 제4항을 준용한다는 제8조 개정안은 “총림 소속 종회의원 스님들 간에도 의견이 다양해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다수 의원 스님들의 의견이 있어 개정안에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법계법 개정안’ ‘종단교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 ‘선학원정상화를위한특별법 개정안’ ‘총림법 개정안’ ‘교육법 개정안’도 잇따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개정안은 이월됐다. 관련 법안에 대해 원로의원, 호계위원, 계단위원과 긴밀한 소통과 자구 수정 과정을 거쳐 11월 정기회에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일부 스님들이 “우선 원로의원, 호계위원, 계단위원회 등에게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호계위원 9인 증원을 예측해서 올린 개정안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내면서 법안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종헌 개정안이 이월되면서 관련 호계원법 개정안도 함께 이월됐다.

초심호계위원을 7인에서 9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도 이월됐다. 이에 대해 보인 스님은 “그간 호계원이 종단 사법부로서 역할을 해왔다. 삼권분립이 명확한 상태에서 종헌 개정에 앞서 호계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화·보화 스님은 “호계원 초심위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현행 초심위원 7명으로도 충분한 심판이 이뤄지고 있고, 정족수미달로 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극히 적다”며 “오히려 2인이 증원되면 심리와 심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광 스님은 “의견 수렴 과정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며 “숙고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원스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월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자의 행자교육 면제와 단기출가자의 단기출가 기간을 행자교육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하는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은 발의자 요청으로 이월됐다.

대표 발의한 정범 스님은 “교육의 질이나 특정 학교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의원 스님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해 이번에 이월하고 출가장려 스님들과 종회의원 스님들의 의견을 물어 개정안을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쇠락한 공찰의 사격을 현저히 격상시킨 경우 중창주로 인정하는 ‘사찰법 개정안’도 긴 논의 끝에 이월됐다.

중앙종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종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사항을 종법으로 규정하는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가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도림 스님은 “호계원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각자의 관점에서 사안을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소신을 갖고 판결해온 호계원 스님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화 스님은 “현재도 개인 신상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의장 결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장시간 논의 끝에 거수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36표, 반대 16표, 기권 7표로 부결됐다. 종법 개정은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날 중앙종회는 탄무 스님의 임기 만료에 따라 소청심사위원에 일진 스님을 선출했고,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자로 법성·법수 스님을 복수 추천키로 했다. 또 교구본사,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수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종무행정감사를 위한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중앙종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심우 스님이 선출됐다. 종정감사특위는 11월 정기회 폐회 전까지 활동하며, 감사 대상 사찰 선정 및 감사반 편성은 의장단과 종정감사특별위원장,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에 위임했다.

종무보고와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는 문건으로 대체했고, 종책질의와 특별위원회 위원 선출은 11월 정기회로 이월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종책모임별로 종법과 종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서 종단 대의기구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계종 국장단 인사…총무국장 담산 스님

진우 스님 9월 9일 임명장 수여
“종단 운영 공백 없도록 노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임기 3주년을 맞아 최근 대규모 총무원 부실장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국장단 인사도 마무리했다.

진우 스님은 9월 9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새롭게 소임을 맡게 된 총무국장 담산 스님을 비롯한 국장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

이날 총무부 총무국장에 담산 스님, 기획실 기획국장에 철인 스님, 기획실 감사국장에 하원 스님, 포교부 포교국장에 도진 스님, 교육부 복지국장에 청곡 스님, 문화부 문화국장에 성만 스님, 사회부 사회국장에 선일 스님, 호법부 호법국장에 진효 스님이 임명됐다.

또 호법부 상임감찰 명원·혜일·혜담 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 혜오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상원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 일학 스님,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부소장 신해 스님이 임명장을 받았다.

진우 스님은 임명장 전달 후 “새로 소임을 맡은 국장 스님들이 많은데, 부실장 스님과 기관장 스님을 잘 보필하고 동료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조속히 파악해 종단 운영에 공백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실장 스님과 종무원 사이의 가교역할을 잘하고, 종단이 안정될 수 있도록 포교·전법 등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장에 각진 스님

9월 5일, 비밀투표서 8표 받아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장에 중앙종회의원 각진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9월 5일 서울 룸비니빌딩 5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132차 회의를 열고, 오심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새 위원장에 각진 스님을 선출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부위원장에는 중앙종회의원 탄원 스님, 간사에는 중앙종회의원 각연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회의는 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위원장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졌으며, 투표 결과는 각진 스님이 8표, 오심 스님이 5표, 무효 1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종책특보에 각림 스님 임명

진우 스님, 9월 9일 임명장



조계종 종책특보에 중앙종회의원 각림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9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신임 종책특보 각림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각림 스님은 다선 종회의원으로 종무행정을 두루 경험하고, 문화 분야에 다양한 활동 경력이 있다”고 말했다.

각림 스님은 “불교문화유산을 보존·발전시키고 종책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내영 기자





“깨끗한 물 덕분에 더 밝은 미래 꿈꿔요”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양곤 외곽 위치 쉐본우 사원학교
스님 35명 생활…400여 명 재학
서산 금강사 후원으로 시설 마련
인근 4000여 주민도 사용 가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이 다섯 번째 결실을 맺었다. 사진은 쉐본우 사원학교 학생들이 설치된 정수시설에서 물을 받고 있는 모습.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쉐본우 사원학교에 다섯 번째 시설이 완공됐다.

양곤 시내에서 동남쪽으로 차로 30여 분 소요되는 쉐본우 사원학교는 사찰이 운영하는 무상교육기관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남학생 227명, 여학생 167명 총 394명이 재학 중이다. 또 교사 11명을 비롯해 35명의 스님이 거주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으로 깨끗한 식수 확보는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그동안 학생들은 우기 때 저수지 물을 물탱크에 보관해 침전물을 가라앉혀 생수통과 식수 항아리를 이용해 식수로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은 늘 위협받았다. 특히 결막염, 설사 등 각종 질환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이러한 현실을 접한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은 현지 조사 끝에 정수시설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2시간 동안 물탱크 1000리터를 채울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마련키로 했다. 마침 서산 금강사에서 현대불교신문에 소개된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기사를 접하고 600만원을 후원하면서 본격 추진될 수 있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아이들은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도 불평 대신 묵묵히 공부를 이어 왔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 교사들은 이번 정수시설 설치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면서, 학업 성취도와 생활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이번 정수시설 설치는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건강이 보장돼야 배움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수시설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스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완공된 정수시설을 접한 한 학생은 “그동안 물이 깨끗하지 않아 자주 배가 아팠다”면서 “이제는 걱정 없이 물을 마실 수 있어 좋다”고 기뻐했다. 또 다른 학생은 “깨끗한 물을 마시며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훗날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로터스월드 관계자는 “깨끗한 물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특히 사원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해외 아동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로터스월드 미얀마지부는 정기적으로 정수시설을 모니터링하며 관리할 예정이다.

우 묘민두 쉐본우 사원학교 교장은 정수시설이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라고 말했다. 교장은 “우리 아이들이 깨끗하지 못한 물을 마시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정수시설 설치로 모두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교육 환경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이 개선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 아이들이 더 밝은 미래를 꿈꾸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25-4277

후원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70돌 중신회, 제1회 총무원장배 골프대회

160여 전국 불자 참여…화합 장
불우이웃 돕기·불교 발전에 회향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제1회 총무원장배 전국 불자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사진〉

9월 8일 전남 나주 중흥 골드레이크CC에서 열린 대회에는 전국 각지 교구 신도회에서 참가한 40개 팀 160여 명의 불자들이 함께해 자비 나눔의 가치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는 낮 12시 개회식에 이어 홀 라운딩으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간간이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걷고 웃으며 친교와 결속을 다졌다.

정원주 회장은 대회사에서 “전국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한 오늘의 대회는 단순한 골프 경기를 넘어 자비 실천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자리”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불자들이 더욱 하나 되어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나아가 불교의 희망을 이어가는 인연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모아진 자선기금은 불교계의 공익 활동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될 것”이라며 “자비와 나눔의 정신을 사회 속에서 구현하는 실천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불자 신행문화의 새로운 시작점이자 서로 친교를 나누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안에서 앞으로도 불교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대회는 시상식을 통해 다버디, 니어리스트, 롱기스트, 최저타상, 단체상 등 다채로운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졌다. 이날 참가자들이 정성껏 모은 자선기금은 중앙신도회를 통해 22교구신도회(회장 백종남)에 전해져 불교계 복지사업과 이웃돕기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9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대중법회를 봉행하며, 9월 27일에는 구미에서 파크골프대회를 열어 불자들의 화합을 도모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원로 스님들 “필요하다면 연임제 전환”

9월 10일 전승관서 원로회의
‘연임제’ 종헌 개정 보고 받아
대종사 특별법계 인준도 진행



태고종 원로 스님들이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에서 4년 1회 연임으로 전환하는 종헌 개정안에 대해 보고받고 “필요하다면 연임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공감의 입장을 전했다.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호명 스님)는 9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웅보전에서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원과 중앙종회로부터 ‘2025년 태고종 영산재 및 국제수계법회 보고’와 ‘종헌·종법 개정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은 총무원장의 임기를 현행 4년 단임제에서 ‘1회 한정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헌 개정안의 당위성을 원로의원 스님들에게 설명했다.

시각 스님은 “현재 종단이 재도약을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에 상응하도록 종헌 종법이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종회는 종단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종헌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로의원 설봉 스님이 “대중 공의를 위한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금명·지현·혜주 스님 등 대부분의 원로 스님들은 연임제 전환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혜주 스님은 “저 역시 종무원장 재직 당시 4년 임기로는 연속성 있는 사업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면서 “종책 사업의 연속성 등을 생각하면 연임제 전환에 부정적 인식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 총무원장도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사퇴하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남은 임기동안 종단을 잘 운영한다면 선거를 통해 선출될 것이고, 잘 못하면 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의원 스님들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

총무원의 ‘2025년 태고종 영산재 및 국제수계법회 보고’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1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태고종 영산재 및 국제수계법회의 참여 독려를 원로 스님들에게 요청했다.

상진 스님은 “총무원에서 사활을 걸고 광화문 광장 영산재와 국제수계법회를 준비 중”이라며 “태고종 종도와 국민들이 수계를 통해 하루만이라도 참회를 할 수 있는 법석이 될 예정이다. 원로의원 스님들께서 법회가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과 권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는 ‘2025년 대종사 특별법계 인준의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방송 신임 이사 선임…소위 구성

9월 10일 제128차 이사회서
도웅 스님·임채진·이수덕 선임

재단법인 BBS불교방송(이사장 수불 스님, 이하 불교방송) 신임 이사에 천태종 교무국장 도웅 스님과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수덕 전 참여불교재가연대 이사장이 선임됐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9월 10일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제128차 회의를 열고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18명 중 12명이 참석해 성원이 된 이날 회의에서 불교방송 이사회는 이사직을 사임한 갈지 스님과 박기동 이사의 후임으로 천태종 교무국장 도웅 스님과 임채진 전 검찰총장을 각각 선임했다.

임기만료된 정수교 이사의 후임으로는 이수덕 전 참여불교재연대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임기만료를 앞둔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를 비롯해 윤원철·엄상호 이사는 연임이 확정됐다.

새로 이사로 선임된 도웅 스님은 “평소 존경하는 수불 스님을 모시고 활동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미력하나마 불교방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는 2025년도 상반기 감사 결과 보고를 진행했다. 보고 과정 중 만공회 회원 모집, 신사옥 건립 등 불교방송 경영에 대한 이사진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서진영 사장은 직접 나서 지적 사항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1시간 20분여 동안 질의응답이 이어지자 이사장 수불 스님과 상임이사 현민 스님은 이사진과 경영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회의는 마무리됐다.

신중일 기자



한 불자의 원력, 불교 중흥 기틀 마련

〈願力〉

대한불교진흥원 50주년 의미

동국제강 창업주 장경호 거사
30억여 원 희사로 1975년 설립
불교 현대화·생활화·대중화 기치

학술지원 불교 연구 토대 마련
불교방송 개국으로 포교 현대화
장학사업·청소년 지원 인재 불사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대한불교진흥원은 9월 8일 서울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대원 장경호 거사 50주기 추모 및 대한불교진흥원 5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동국제강 창업주 대원 장경호 거사.

한국불교의 교화와 포교, 학술연구, 문화 진흥을 이끌어 온 대표적 불교재단으로 불교의 사회적 저변 확대에 기여해 온 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진흥원은 1975년, 한평생을 '기업보국' 정신으로 살았고 일생의 결실을 고스란히 불교 중흥과 사회 환원에 바친 동국제강 창업주 대원(大圓) 장경호(1899~1975) 거사의 원력으로 설립됐다. 장 거사는 사재 30억 6300만원(현 가치 약 5000억원)을 불교 중흥을 위해 헌납한 뒤 입적했고, 그의 숭고한 삶과 뜻은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한 실천적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진흥원은 1970년대 한국 사회가 산업화와 근대화의 격변기를 겪던 시기, '불교 현대화·생활화·대중화'를 기치로 출범했다. 사찰 중심의 신행에 머무르며 사회와의 접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느낀 장경호 거사는 불교가 시대와 함께 숨 쉬며 대중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품었다. 장 거사는 불교의 현대적 진흥과 후대 전승을 위해 자산을 희사했고, 이어 불교진흥원 설립이 추진됐다.

진흥원이 지난 50년 동안 걸어온 길은 곧 한국불교의 현대사와 궤를 같이한다.

진흥원은 학술 지원 사업을 통해 불교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학자들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해 수많은 불교 전문 인재를 길러냈고 '불교사전' 편찬, 불교 고전 번역, 현대 불교학 연구 지원으로 학문적 기반을 넓혔다. 불교 교양 도서를 보급하고 불교 입문서를 출판해 대중이 쉽게 불법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평론〉 〈불교문화〉 발간은 불교 담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었다. 불교 출판과 언론 활동을 후원해 불교적 가치와 사상을 대중 사회에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BBS불교방송 설립은 진흥원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1990년 개국한 불교방송은 전세계 최초의 불교 전문 라디오 방송으로, 포교 현대화의 상징이 됐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국민에게 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고, '불교는 사찰 안에 갇혀 있다'는 인식을 넘어 생활 속에서 불교를 접하는 획기적 전환점이었다.

군 법당 건립, 군법사 지원, 불교성전 보급 등 군 포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전국에 50여 개 군법당이 건립됐고 수천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와 차량이 제공됐다. 부처님오신날 연합법회를 범종단적으로 개최하고 제등 행렬, 청소년 경연대회, 한일 불교 교류 등의 문화 행사를 통해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강화했다.

장학사업과 청소년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장학사업은 장경호 거사의 신념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야다. 그는 "불교의 미래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있다"는 믿음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인재를 양성했다. 수많은 학생들이 진흥원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갔고, 이는 불교적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됐다.

진흥원은 설립 50주년을 맞은 지금,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 100년을 향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불교 진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불교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혁신을 위해 AI와 디지털 전법, 국제 포교, 청년 불교 활성화, 친환경 불교, 사회공헌 활동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흥원 측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면서 "불교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재단의 수성과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면서 글로벌 시대, 불교 공익 재단의 모범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산불 피해 원인 조사, 시민들이 나선다

불교환경연대 등 9월 11일 회견
'산불 피해 조사 프로젝트' 실시

시민단체와 환경 생태 전문가가 나서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 피해의 확산 원인조사에 나선다.

불교환경연대,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9월 11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5년 경북산불 피해확산 원인조사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사진〉 이날 회견에는 불교환경연대,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 홍석환 부산대 교수 등이 함께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31명의 사망자와 4000여 채의 주택 전소, 1조 100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남겼다. 특히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전각 대부분이 불타며 천년고찰 문화유산를 잃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산불확산의 원인과 부족했던 대응뿐 아니라 최근 비판이 되고 있는 각종 산림사업과의 관계성에 대한 조사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날 대표 발제자로 나선 홍석환 교수는 연구팀에서 실시한 현장조사와 위상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산불 피해 확산 범위와 피해강도 1차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산불 피해 면적은 9만9000여 헥타르다. 그러나 홍석환 교수 연구팀이 위성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 면적은 11만6333헥타르다. 정부 조사보다 약 15%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로 면적으로 따지면 축구장 2만 3800개, 여의도 면적의 58배에 달하는 규모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산불 대응은 오직 벌목과 조림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한정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대표적 사례며, 인과관계의 과학적 조사와 분석없는 주먹구구 예산 투입"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현장 조사와 정밀 분석을 바탕으로 산불 초기 확산과정 및 초동진화 실패 원인을 찾는 한편 산불 대형화에 따른 진화대응체계 및 문제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식생유형, 숲가꾸기 정도 및 경과기간, 식생층위별 밀도 및 규격 등 피해강도별 현장 식생특성을 정밀 조사하고 산불 피해 경계부의 특성도 연구할 예정이다.

올해 12월까지 산불피해지역 피해강도별 식생정밀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산불진행 경과 추적 및 현장대응 문제점 분석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조사자료 정리 및 데이터를 분석하고 2월에는 보고서 작성 및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023501-04-069889 (불교환경연대) 02-720-1654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서울공고 생명존중 MOU

9월 10일, 생명나눔 힘 모으기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9월 10일 서울공업고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 생명존중 및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사진〉



이번 협약식은 미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생명나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생명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측에 따르면 2019년 7월 16일부터 만 16세 이상 고등학생들도 부모 동의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기 및 조직기증 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관련 법안이 개정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공업고등학교는 △서울공업고 생명존중, 생명나눔 동아리 개설 및 운영 △연 2회 이상 교내 헌혈행사와 연계한 장기기증 캠페인 실시 △생명존중·생명나눔 동아리 활동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생명나눔 특강 실시 △법인 소식지를 통한 서울공업고 생명존중, 생명나눔 동아리 활동 홍보 △동아리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 인정 △동아리 캠페인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 '영캠프'서 '뮷즈'도 만난다

동국대–박물관문화재단 MOU

동국대가 추진하는 청년불교문화축제 '영캠프'에서 최근 핫한 굿즈 브랜드 '뮷즈(MU:DS)'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9월 11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과 2025 영캠프 이벤트 및 체험 행사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윤재웅 동국대 총장,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한국 전통과 문화적 가치 확산·활성화를 위한 협력 추진 △양 기관이 보유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각종 행사 지원 및 공동 협력 등 양 기관 간 정보교류와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을 계기로 9월 16일 진행되는 동국대 영캠프에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상품 브랜드 '뮷즈' 제품을 학생들에게 선보여진다. 두 기관은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반가사유상, 달항아리 등을 모티브로 한 뮷즈 제품을 활용해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한 문화유산 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캠프 현장 차주 상보〉

신중일 기자

홍대선원, 글로벌 수행도량 도약 선언

9월 6일, 3주년 기념파티
'히말라야 프로젝트' 발표



'글로벌 수행 놀이터' 저스트비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이 개원 3주년을 맞아 새로운 원력을 선포하고 진정한 글로벌 수량도량으로서의 도약을 다짐했다.

홍대선원은 9월 6일 선원 내에서 '저스트비 홍대선원 3주년 기념파티'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파티는 '힙한 불교'의 모델로 한국불교 포교의 새바람을 일으킨 홍대선원의 지난 3년을 돌아보며 함께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행패스 명상 멤버십 출시 △네팔 히말라야 최초 한국 사찰 건립 △싯다르타 순례길 복원 등 홍대선원의 추진할 다양한 '원력'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개된 'JustBe 수행패스'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한 달 동안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명상 멤버십이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자'를 모토로 편안하게 머물며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수행패스'는 월 10만원 구독료로 한 달간 홍대선원에서 진행되는 명상 프로그램을 무제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평일 템플스테이 1회 권도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24시간 열린 공간인 티라운지에서 차도 즐길 수 있다. 신청은 구글폼을 통해 가능하다.

이날 공개된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는 '저스트비 히말라야'.

'저스트비 히말라야'는 네팔 포카라 인근 히말라야 품디콧 언덕(해발 1400m) 한국불교 최초의 국제선원과 수행마을인 저스트비 히말라야 베이스캠프를 조성하고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서 포카라까지 이어지는 160km 순례길을 복원하는 문화·교육·환경 기반의 공익 프로젝트다.

현재 방 6개 규모의 현지 게스트하우스를 임대 계약한 상태로 9월 28일 미륵보살 점안 법회를, 11월 7일 약사여래불 고불식을 봉행할 계획이다. 준한 스님은 올해 안에 모연 캠페인 및 후원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저스트비 히말라야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에는 베이스캠프 부지를 확보하고 순례길 경로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한국과 네팔 간 공식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농협 301-0319-5339-51(홍대선원) 010-5906-2423 임은호 기자

중승대 총동문회, 라오스 환아 지원

9월 8일, 재단 라오스 지부 방문
3000달러…아동병원서 쾌유 기도



조계종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라오스 지부에 스님들의 따뜻한 자비나눔 손길이 전해졌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회장 성행 스님, 이하 총동문회) 라오스 성지순례단은 9월 8일 복지재단 라오스 지부와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을 찾아 어린이들의 쾌유를 기원했다.〈사진〉

회장 성행 스님을 비롯한 20여 명의 동문 스님들은 라오스 성지순례 첫날 일정으로 복지재단 라오스 지부를 방문했다. 스님들은 이 자리에서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난치병 어린이 치료 지원금 3000달러를 라오스 지부에 기부하고,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우유와 건강 과자, 수건이 담긴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성행 스님은 "신심 깊은 불교국가인 라오스에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조계종의 도움으로 하루빨리 완쾌하길 바란다"면서 "개인적으로나 종단적으로도 어린이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동문회 스님들은 라오스 지부에 이어 국립아동병원도 방문했다. 어린이들을 만난 스님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완쾌를 기원했다. 임은호 기자

혜민 스님 '다나 밥차' 응원 1000만원 후원

9월 5일 아름다운동행 통해
"취약계층 지원 이어가겠다"



고담선원 주지 혜민 스님이 매주 화요일 서울 우정국로 일대에서 밥차를 열고 노숙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단법인 다나(대표 탄경 스님) 후원에 나섰다. 혜민 스님은 밥차에서 3년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번 지원이 더욱 훈훈함을 준다.

혜민 스님은 9월 5일 서울 다나 대표 탄경 스님에게 밥차 운영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혜민 스님은 "3년 넘게 다나에서 탄경 스님을 도와 봉사활동을 함께 하며 배우는 점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탄경 스님이 진행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탄경 스님은 "혜민 스님이 처음 밥차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몇 개월 갈 수 있을까 생각도 했지만 3년째 묵묵히 나눔을 이어오고 있어 감동이다"면서 "자비심과 나눔을 실천이다. 앞으로도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혜민 스님은 "의료 환경이 열악한 불교국가에서 백내장 등으로 힘든 삶을 이어가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탄경 스님과 함께 하고 싶다"면서 "60세가 되기 전까지 기부금 10억원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006001-04-311125(다나) 임은호 기자

세계 명상 석학, 9월 동국대로 모인다

동국대 종학연구소 주최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9월 25~26일 본관 남산홀서
'명상 국제 컨퍼런스' 개최
헤롤드 로스 등 석학들 참여
명상과 정신건강 · 가치 논해
개막식서 진우 스님 기조연설

문화 ·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
9월 20~21일 '선지식과 만남'
선명상콘서트, 문화 · 명상 접목
11월 22~23일 명상부스 운영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9월 25~26일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명상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는 동국대 전경.

명상 컨퍼런스 참석 석학

1일차 (9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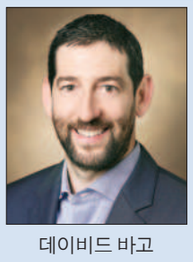

릭 핸슨


정도 스님


권준수


에릭 룩스

2일차 (9월 26일)


데이비드 바고


에밀리아나


전미선


진 크리스텔라


해롤드 로스

세계 명상 석학들 대거 방한

명상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국제 행사가 9월 동국대학교에서 열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9월 9일 교내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주요 일정을 소개했다.

'명상, 하나 되는 길'을 주제로 열리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지난 4월 'K-청소년 명상법' 배포를 시작으로 △학술 △문화 △체험 △교육 4개 영역에서 다채로운 명상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9월부터는 학술 영역을 중심으로 국제 행사들이 잇달아 개최된다.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명상 국제 컨퍼런스'는 9월 25~26일 동국대 본관 남산홀 일원에서 개최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적인 명상 전문가와 해외 석학 6명·국내 석학 3명이 참석해 최신 명상 연구들을 공유하고 대중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국내외 석학들의 면면도 주목할 만하다. 1일차(9월 25일) 세션 '명상과 정신건강'에서는 저서 〈붓다 브레인〉, 〈뉴로다르마〉로 한국에 잘 알려진 릭 핸슨 UC버클리대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Greater Good Science Center) 수석 연구원이 '평온과 행복·사랑의 마음을 개발하는 마음챙김 수행'을 주제로 붓다와 위대한 스승들이 전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내면의 지혜와 노력을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모색한다.

'마음챙김 수행을 통한 대학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한 에릭 룩스 브라운대학 마음챙김센터 소장은 '과학과 성찰의 만남: 고등교육 명상의 현재와 미래'에서 브라운대학이 고등교육·전문직 훈련 등에 마음챙김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소개한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선, 하나 되는 길: 동국대 명상 교육과 비전'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선 수행의 필요성과 동국대에서 이뤄지는 명상교육들의 면면을 세계에 알린다. 권준수 한양대 석좌교수는 '명상(템플스테이)의 뇌과학'에서 템플스테이의 정신건강 및 뇌기능의 긍정적 변화 결과를 대중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2일차(9월 26일) '명상의 사회적 가치' 세션에는 데이비드 바고 국제명상연구학회장이 '명상을 통한 자기변화'에서 명상 훈련을 통한 자아의 발달적 변화를 탐구하며, 에밀리아나 사이먼-토마스 UC버클리대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 과학 책임자가 '친철챙김을 찾아서: 친사회적 실천이 어떻게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진 크리스텔라 인디애나주립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마음챙김 식사 알아차림(MB-EAT)'을 통한 현명하고 건강한 자기조절 방법을 강연한다. 강연 중에는 'MB-EAT'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북미대학 최초로 '명상학(Contemplative Studies)' 학위를 신설한 해롤드 로스 브라운대 종교학과 교수는 '북미 대학의 명상(성찰)학에서 명상의 의미'를 통해 자신의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명상학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전미선 아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명예교수는 명상, 이완요법, 침술 등을 포함한 통합의학프로그램의 효과와 의료현장에서 명상 활용 가능성을 '암 생존자에서 심신요법(명상)의 적용' 강연을 통해 모색한다.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컨퍼런스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릭 핸슨 수석연구원과 해롤드 로스 교수는 미국 명상학계에서 일가를 이룬 원로학자이고, 다른 4명의 해외 학자들은 세대를 이어가는 중진학자들"이라며 "명상 교육, 식이조절 등 다양한 해외 연구 사례들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상 주제 연계 프로그램 '다채'

문화와 함께하는 명상프로그램도 진행된다. 9월 25일 오전 10시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개막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기조연설과 뮤지컬 싯다르타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9월 26일 오후 7시 열리는 선명상 콘서트에서는 명상을 주제로 한국음악, 클래식, 무용, 합창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체험 프로그램 역시 풍성하다. 9월 20~21일과 27~28일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는 '선지식·지성인과의 만남'이 진행된다. 스님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법문과 강연이 선보이는 '선지식·지성인과의 만남'에는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용타 스님(행복마을 회주) △성행 스님(청계사 주지)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성진 스님(성관사 주지) △광용 스님(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정목 스님(정각사 주지) △윤재웅(동국대 총장) △전현수(정신건강의) △김열권(위빠사나 붓다선원장)이 강연자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10월부터 중앙도서관 4층에 선명상홀을 개관하고 '도서관 선명상 체험'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또 10월 18~19일 통도사, 11월 1일 서울 남산 둘레길에서 걷기 순례 명상이 이뤄진다.

오는 11월 22~23일 학여울역 세텍(SETEC) 제2전시실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명상법을 만날 수 있는 '명상 체험부스'가 마련돼 대중과 소통할 예정이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서울국제명상엑스포 운영위원장)은 "올해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주제가 '명상, 하나 되는 길'이다. 이번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명상과 자신이 하나되는 기회를 만나길 바란다"며 "나아가 동국대가 명상 세계화의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임진왜란 의승·의병 합동추모재

『충절의 고장, 영천 – 국난극복의 정신을 다시 새기다』
'경북의 숨겨진 보물' 영천시는 동방성리학의 종조 포은 선생의 학풍과 전국 최고 수준의 강학소들이 산재한, 정신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영천은 국난 극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경북 10개 지역 의병이 연합해 영천성 수복전투에서 육지 최초 대규모 승리를 이루었고, 은해사 승려 200명도 참여해 공동체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 전투는 이순신의 명량대첩에 비견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백사별집〉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구한말 산남의진, 6.25 전쟁의 영천대첩까지, 영천은 두 차례 '대첩'을 이룬 국난극복의 상징 도시입니다.
이번 '의승 및 의병 합동추모제'는 영천이 지닌 충절과 화합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2025년 9월 27일(토) 12:30 ~ 15:40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 문의 054)355-3318 (종무소)

주최 : 조계종 10교구 은해사 주관 : BTN불교TV 후원 : 경상북도, 영천시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통도사·범어사, 백중 회향…불은 실천 발원

〈佛恩〉

성파 대종사 "불자라면 실천해야"
제비 울음에 담긴 지혜의 가르침
정여 대종사 "백중 지장기도도 수승"
지장보살 원력, 선행 실천을 당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9월 6일 백중을 맞아 통도사와 범어사가 백중기도를 회향했다. 사진은 9월 6일 통도사 '백중 사선망부모 천도기도 회향법회'에서 법문하는 조계종 종정 중봉성파 대종사.

전국 사찰들이 백중기도 회향을 봉행한 가운데, 경남을 대표하는 통도사와 범어사가 대중과 함께하는 법석을 열어 불은(佛恩)의 실천과 기도의 공덕을 일깨웠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9월 6일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 설법전에서 열린 '백중 선망부모 천도기도 회향법회'에서 지혜와 언어 수행의 가르침을 대중에 전했다.

성파 스님은 '제비의 노랫소리'를 비유 삼아 법문을 시작했다. "제비는 사람 곁에서 집을 짓고 보호를 받으며 아침저녁으로 노래로 보답한다. 불자들도 부처님의 은혜를 실천으로 회향하기 위해 무엇보다 제비가 노래하듯 말을 해야 한다"며 제비가 우는 소리가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라고 말했다. 스님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줄 아는 태도가 수행자의 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말의 무게를 역설했다.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귀에 꽂히면 힘으로도 뺄 수 없다"며 언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는 무서운 힘을 지녔음을 경책했다. 스님은 "악담과 독한 말을 삼가고, 대신 염불로 마음을 다스리라"고 당부했다.

성파 스님은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며 "불자는 아는 데 머무르지 말고 반드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올 한 해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백중기도를 원만히 회향한 사부대중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회향사에서 "효는 부처님의 자비심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가족을 살리고 어른을 공경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바탕"이라고 강조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90일간 이어온 '을사년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를 9월 9일 회향했다.

설법전에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회향법회에서는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가 불자들에게 기도의 의미와 지장보살의 원력을 설하며 정진을 당부했다.

정여 스님은 법문에서 "많은 수행이 있지만 선망부모와 모든 중생을 위해 100일 동안 지장기도를 올린 공덕은 그 어떤 수행보다도 수승하다"며 "불자님들의 정성으로 살아 있는 이들의 업장이 맑아지고, 죽음의 세계에 머물던 유주무주 고혼들 또한 극락세계에 왕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원력을 세운 분"이라며 "남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선행할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주지 정오 스님이 사중을 대표해 생전예수재 가사불사로 마련된 새 가사를 정여 스님에게 공양 올렸다.

정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윤달을 맞아 가사불사를 봉행해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선방 스님들께 가사를 공양 올릴 수 있었다. 이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동참 덕분"이라고 전했다.

불교문화 보고 범어사 '웰니스 콘텐츠' 각광

9월 5~6일, 의료관광컨벤션 참가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 홍보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9월 5~6일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 참가해 웰니스 컨텐츠로서의 사찰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선보였다. 행사 기간 해외 바이어와 국내 관련 기업은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템플레킹 등 범어사의 웰니스 콘텐츠에 큰 관심을 보였다.

범어사는 이번 행사에서 총 3개의 전시 부스에서 템플스테이·사찰음식·템플레킹을 소개했다. 템플스테이 부스에서는 명상, 다도, 찻자리 등 다양한 체험 요소를 담은 프로그램을 전시했고, 템플레킹 부스에서는 금정산 일원에서 진행되는 당일형 트레킹 코스를 소개했다. 사찰음식 부스에서는 파인다이닝 콘셉트와 체험형 메뉴를 함께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성보박물관도 참가해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렸다.

행사에 앞서 열린 환영 리셉션에서는 몽골, 러시아, 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 기관 및 에이전시 관계자들과 만났다. 본 행사 기간에도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통한 1:1 비즈니스 미팅이 이어져 범어사의 웰니스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적극 홍보하는 창구가 됐다. 일부 국가와는 협약 논의 단계까지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범어사는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입주 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웰니스 프로그램 활용 방안을 논의해 의미를 더했다. 범어사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접목 웰니스'는 의료관광형 체험 프로그램의 개인정보와 참여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보 암호화 기술(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참가자가 사찰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NFC 등 간편 인증으로 최소한의 출입·참여 사실만 기록하는 구조다. 기록은 블록체인에 저장돼 외부 수정·유출이 어렵고, 민감정보는 비공개로 보호된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9월 5~6일 '2025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 참가해 웰니스 관광지로서 사찰의 새로운 가치를 선보였다.

주지 정오 스님은 "이번 컨벤션은 범어사의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우리 불교문화 고유의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K-웰니스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주석 스님, 불교방송 합창단에 5000만원

9월 8일, "천진불 울림 커지길"



BBS부산불교방송(사장 원허 스님)은 9월 8일 혜원정사 혜원복합문화센터에서 '소년소녀합창단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주석 스님은 합창단의 안정적 운영과 불교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해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주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산불교방송은 방송 제작비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불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에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소식을 듣고 함께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불교방송 소년소녀합창단이 더욱 성장해 세계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실력과 힘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BBS부산불교방송 사장 원허 스님은 "주석 스님의 큰 뜻이 합창단을 이끄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용기와 위안이 되고 있다"며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했지만 믿음과 원력이 모여 합창단이 앞으로 전국과 세계 무대에서 천진불의 목소리를 울려 퍼뜨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BS부산불교방송 소년소녀합창단은 부산불교방송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어린이 합창단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혜원정사 2층 연습실에서 정기적으로 연습하며 실력을 다지고 있다. 예술감독 정필윤과 음악감독 윤재웅이 합창단 지도를 맡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동래구불교연합회, 자비의 백미 나눔

9월 8일, 자비암서 600만원 상당



부산 동래구불교연합회(회장 자관 스님)가 지역 어르신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연합회는 9월 8일 부산 자비암에서 전달식을 열고 동래구 내 노인복지관과 무료급식소에 백미 20kg 84포, 10kg 32포(6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사진〉

자관 스님은 "백중 기도를 회향하며 더 많은 복덕을 이웃과 나누고자 스님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전달된 백미는 동래구 관내 복지기관을 통해 배분돼 어르신 무료급식소와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연등사 주지 범일 스님 취임식 봉행

9월 6일 "소통 도량으로 가꿀 것"



부산 연등사는 9월 6일 주지 범일 스님의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연등사는 지역에 자비의 쌀 500kg을 전달해 생전예수재와 백중기도 회향을 의미를 새겼다.〈사진〉

범일 스님은 취임 인사에서 "연등사는 1860년대 창건된 전통사찰로 부처님 후불탱화와 석조좌상 지장보살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량"이라고 소개하고 "앞으로 부산 시민과 불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평안을 전하는 전법 도량으로 거듭나겠다. 또 시민과 불자들의 행복을 위한 소통의 도량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연의 색,
K-컬처로 피어나다"

제11회 대한민국천연염색 작가대전

The 11th Natural Dye Artist Exhibition and Color Festival

| 일자 | 2025. 09. 27.(토) - 28.(일)
| 오프닝 | 11:00
| 장소 | 광천관음사
| 주최 |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천연염색협회, 광천관음사
| 후원 |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홍성군 HONGSEONG-GUN
| 후원단체 | 광천관음사, 밀양보문사, 포항소화공방, 사천알알이랑, 부안은당공방, 문경만타산방, 제주참곱다, 동막골스토리, 마타리공방, 소현공방, 청염공방, 최정혜공방, 블루윙 소운성공방, 조각보에담은세상, 가온전통문화연구소, 석미스토리

6월 항쟁 중심 원각사에 기념비 '우뚝'

9월 7일, 경내 제막식 봉행
미륵사지 당간지주 모티브로
5 · 18, 6월 항쟁 의미 되새겨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원각사는 9월 7일 6월 민주항쟁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광주지역 불교계의 중심지였던 원각사에 민주화 정신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다.

원각사 6월 민주항쟁 기념비 건립위원회(위원장 도제 스님, 이하 건립위)는 9월 7일 광주 원각사에서 기념비 제막식을 열고 5·18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제막한 기념비는 높이 3m의 화강석 조형물로 당간지주와 연꽃, 화염 등 상징적 이미지를 담아 제작됐다. 조각가 윤선종 작가는 "익산 미륵사지 당간지주를 모티브로 민주화 이념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평화를 상징화했다"고 설명했다. 본체에는 원각사 6월 민주항쟁의 역사성과 가치가 새겨졌으며, 좌우면에는 동참자 명단이 각인됐다.

제막식에는 원각사 회주 현고 스님,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 도제 스님,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 부원장 도우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와 정준호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정진백 공동건립위원장,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원각사는 6월 항쟁의 심장부였다. 5·18 추모법회 당시 경찰이 난입해 성전을 유린했으나, 이후 스님들과 청년 불자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며 항쟁의 선두에 섰다"며 "오늘 제막된 기념비는 억압과 폭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은 불굴의 원력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념비가 우리 불교가 걸어온 민주주의의 길을 증명하고, 후세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산 교육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고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기념비는 선열들의 헌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남겨 후손들이 그 정신을 깊이 새기게 하는 등불"이라며 "그 정신이 광주 불교계의 맥을 타고 더욱 굳건히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자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념비를 조성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소운 스님도 "원각사 기념비는 깨어 있는 불교, 민중과 함께한 불교의 증표"라고 평가했다.

원각사는 1987년 5월 18일, '광주항쟁 민주영령 추모제'를 열던 중 경찰이 법당과 요사채에 난입해 최루탄을 난사하는 사건을 겪었다. 당시 금강 스님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청년 불자 13명이 연행됐다.

이에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 대한불청 전남지구, 대불련 전남지부 등은 '불교탄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규탄법회와 단식농성을 전개했고, 전국 승가단체와 대학이 호응했다. 정토구현전국승가회 스님 523인은 당시 전남도경국장과 경찰서장을 고발해 공식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 원각사는 매년 5.18민중항쟁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꽃무릇으로 사찰·지역의 길을 잇다

지역 불교人 함평 용천사 주지 혜용 스님

꽃무릇 수목공원 · 축제
지역과의 상생모델 제시


혜용 스님이 꽃무릇 수목공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함평 용천사(주지 혜용 스님)가 붉게 물든 꽃무릇으로 새로운 포교의 길을 열고 있다. 줄어드는 종교 인구와 탈종교화 흐름 속에서 사찰이 지역사회와 함께할 길을 모색해 온 주지 혜용 스님이 '꽃무릇 수목공원'과 '꽃무릇 축제'를 포교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혜용 스님은 새로운 포교의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이 "앞으로 20~30년 뒤, 한국 사찰도 유럽의 성당처럼 박물관화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 고백한다. 급격한 산업화·정보화 사회 속에서 종교는 빠르게 영향력을 잃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도심 사찰과 벽지 사찰이 같은 전략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지역 맞춤형 포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용천사 꽃무릇 수목공원은 이 같은 고민의 산물이다. 스님은 30여 년 전부터 '사찰의 미래 동력은 수목장·자연장과 같은 생태 장묘문화'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단순한 묘역이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져 누구나 찾아와 위안을 얻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혜용 스님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수목장 바닥을 전부 꽃무릇으로 심은 곳이 용천사"라며 "이는 묘역이면서 치유와 힐링의 공원이며, 앞으로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생태 수목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년 뒤에는 묘역 전체가 꽃무릇으로 뒤덮여, 조화(造花)가 필요 없는 살아 있는 꽃의 동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수목공원 개관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스님은 "3년 동안 군청과의 법적 다툼 끝에 겨우 허가를 받았다"며 고충을 전했다. 처음에는 2800평 규모로 계획했으나, 환경영향평가와 법적 장벽에 막혀 최종적으로 600평 규모의 허가만 얻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사찰이 행정과 법률 문제를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종단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완공된 수목공원에는 600~800기 봉안이 가능하다. 향후 지역 여론과 사회적 공감대가 쌓이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님은 "이곳이 납골묘역일 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하는 생태공원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꽃무릇은 불교와도 인연이 깊다. 예전에는 꽃무릇 즙을 탱화와 단청의 방부제로 활용하기도 했다. 혜용 스님은 꽃무릇을 "정열적이고 희생적인 꽃"이라 설명한다. 꽃대가 70cm 가까이 치솟아 붉은 꽃을 피우는 동안 향기는 잃지만, 그만큼 온 힘을 다해 피워내는 모습이 곧 '영가를 위한 봉헌'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추석 무렵 만개하는 붉은 꽃무릇은 차례와 함께 불교적 공양의 의미도 갖는다.

1999년 시작된 꽃무릇 축제는 용천사를 전국에 알린 계기가 됐다. 불과 수백 명에 그쳤던 방문객이 이듬해 40만 명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함평불교사암연합회장으로서의 행보도 주목된다. 혜용 스님은 관공서 불자회를 창립하고 수해복지기금 마련, 지역 현안 대응 등 불교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스님은 "열악한 사찰들이 많은 지역에서 연합회의 역할은 크다"며 "불교가 지역과 상생하는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출가, 무분별심으로 나아가는 길"

오대산 월정사, 제69기 출가학교 졸업식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8월 31일 제69기 출가학교(학교장 자현 스님) 졸업식을 개최했다.〈사진〉

제69기 출가학교에는 32명(남 22명, 여 10명)이 참여해 21일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장을 받았다.

주지 정념 스님은 "요즘 현대인들이 21일간 한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란 쉽지 않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출가의 정신으로 자신을 비워내고 졸업을 맞이했다는 것은 지극한 마음, 하심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출가학교 생활은 자기중심의 분별심을 내려놓고 무분별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인간의 문명이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탐욕·분노·어리석음이 낳은 고통은 여전히 깊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분별심을 비워내고, 자비와 평등의 마음을 회복하는 수행에 있다"고 설했다.

월정사 출가학교는 2004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3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실제 출가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 출가자 감소 시대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월정사 출가학교는 오는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제3기 낭만출가학교를 운영하며, 제70기 출가학교는 2026년 1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마하위하라, 1기 불교대학 입학식

9월 6일, 입학식 및 개강



아산 스리랑카 사원 마하위하라(주지 담마끼띠 스님)는 9월 6일 불교대학 1기 입학식 및 개강식을 개최했다.〈사진〉 마하위하라가 올해 처음으로 개설한 불교대학에는 30명의 신입생이 등록했다.

주지 담마끼띠 스님은 인사말에서 "마하위하라가 건립된 지 10년 만에 불교대학을 개설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다양한 경전 강의와 명상 수행을 통해 교학과 실천이 하나 되는 배움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첫 강의를 맡은 사단법인 한국명상원 묘원 원장은 "위빠사나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으로, 이론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 이해해야 하는 길"이라며 "부처님의 법문이 모두 질문과 응답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수행 또한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30명의 신입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함께하는 신행공동체를 이뤄 나가겠다"고 발원했다.

불교대학 1기는 오는 11월 10일까지 '법구경(담마끼띠 스님)', '반야심경과 초기불교 및 화두(박인성 동국대 명예교수)', '위빠사나 명상(묘원 원장)', '특강(휘정 스님)' 등 총 10회의 강의가 이뤄진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총림 송광사, 하안거 해제법회

9월 6일, 백중 회향도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9월 6일 경내 사자루와 대웅전 앞마당에서 을사년 하안거 해제법회 및 백중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방장 현묵 스님과 주지 무자 스님을 비롯한 총림 대중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장 현묵 스님은 법어에서 "삼복더위에도 자기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용맹정진한 수행자들의 공력이 해제 걸망 속에 알차게 담겼다"며 "해제를 맞아 좌복 위에서 지은 공부를 일상 속 만행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지 무자 스님은 인사말에서 "하안거 수행과 49일간 백중기도 공덕이 선망부모와 뭇 생명들의 해탈로 이어지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법회 후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반야용선을 앞세운 요잡의식이 봉행돼 유주무주 영가들의 천도를 기원했다. 이날 백중 기도정진은 성보박물관 앞마당에서 거행된 소전의식으로 회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 을사년 하안거 해제법회

9월 6일 대웅전서 봉행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9월 6일 대웅전에서 을사년 하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해제와 백중 회향을 겸한 이날 법회에는 수좌 일수 스님과 주지 무공 스님을 비롯해 안거를 성만한 수좌 22명, 대중 스님, 신도들이 동참해 3개월간의 수행을 회향했다.

법문에 나선 일수 스님은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는 곳에 중생이 있다'는 말처럼 마음을 깨치지 못했기에 중생이지만 간절히 화두를 들고 정진하는 그 자리가 곧 견성"이라며 "더 나아가 확철대오에 이르면 부처님의 자리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 정법사, 자비나눔으로 백중 회향

9월 6일 쌀·사료 등 보시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는 9월 6일 설법전에서 백중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선망부모와 조상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사진〉

주지 광우 스님은 법문에서 "기도와 공덕은 내 가족을 넘어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힘이 된다"며 "정법사가 수행과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법사는 백중 회향을 신도들이 마련한 모연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산청지역 수재민에게 쌀 1000kg씩 총 3000kg을 전달했고, 유기동물보호소에는 500만원 상당의 사료를 보시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가야문화진흥원, 제9회 명상문화축제

9월 7일 김해문화의전당서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해공 스님)은 9월 7일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제9회 가야명상문화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축제는 명상과 국악, 무용, 샌드아트, 합창을 한 무대에 담아 시민들에게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고 치유와 화합의 메시지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사장 해공 스님은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과 마음의 호흡을 알아차림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축제가 시민들에게 행복한 명상의 세계를 알리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읍사암聯, 백운 화상 추모다례재

9월 4일, 정읍 미륵암서



정읍사암연합회(회장 대원 스님, 내장사 주지)는 〈직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인 9월 4일 정읍 미륵암 특별 법단에서 제3회 백운경한 화상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내장사 한주 대우 스님은 추모문을 통해 "〈직지〉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자 인류 문명사의 위대한 기록 유산이며, 정신문화의 혁명이며 인류의 축복"이라며 "문화가 살아야 사람답게 살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백운 스님의 뜻이 온 인류의 가슴에 피어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I 등 시대 과제, 불교 접점 논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제10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한마음과학원 9월 27일 안양본원서
'내면 평화와 지속 가능 미래' 주제
대행선연구원 제24회 계절발표회
동국대 미디어커뮤硏과 공동으로
'종교커뮤니케이션' 주제 발표진행

AI·디지털 시대에 내면 평화와 종교 커뮤니케이션 등 산적된 과제들을 불교적으로 고찰·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잇달아 열린다.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스님)은 9월 27일 오전 10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제10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이날 국제학술대회에 AI시대를 맞아 나타나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진영 미국 아메리칸대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의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성: 불교적 관점'을, 야닉 브뤼느통 프랑스 파리 시테대 교수가 '백운화상록(白雲和尙語錄)에 실린 편지의 분석을 통해 본 백운화상의 생애와 사상'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원하이밍 중국 인민대 교수가 '한마음(오직 心)의 힘과 의본론(yibenlun 意本论): 〈금강경〉에 대한 비교철학적 해석'을, 김준영 오산대 평생교육원 강사가 '오공(五共) 사상 기반 심상유도명상 체험 연구: 생성형 AI 이미지 활용'을, 오영국 동국대 박사과정생이 '앎의 환상으로부터의 해탈-대행선과 족첸의 관점'을, 박진영 동국대 박사과정생이 '수행으로서의 축제-대행선사 가르침에 입각한 연등회 준비'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청동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박사수료), 혜유 스님(한마음아카데미·독일), 김재영(산동대 치루 연구 레지던시 프로그램 방문학자), 이준엽(약산애 한방병원장), 양영순(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소진(신한대 교수)가 참여한다.

한마음과학원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국·미국·중국·프랑스 등 국내외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와 현대과학, 인공지능, 지속가능성에 대한 담론을 나누는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AI와 명상, 불교철학의 융합을 시도한 연구 발표를 통해 미래 사회의 정신적·윤리적 나침반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9월 20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24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종교 커뮤니케이션과 불교학: 데이터로 읽는 지식과 수행'을 주제로 한 이날 계절발표회는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소장 강재원)와 공동 주최로 열린다. 이는 대행선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가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된 것을 계기로 다른 학술단체와의 교류를 시도하는 자리여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계절발표회에서는 최신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기반 분석 방법론이 불교학 분야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목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권호진 SBS미디어넷 국장은 '종교커뮤니케이션의 학술동향 : 불교, 기독교, 가톨릭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김두식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은 '〈한마음요전〉의 토픽 분석을 통한 대행선사 사상의 다층적 구조 연구'를 각각 발표한다. 주제 발표 논평자로는 남철우 KBS미디어연구소 연구원, 김봉래 전 불교방송 보도국장, 장하용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여현 스님(동국대 박사)이 참여한다.

계절발표회에서는 묘공학술상 수상작 소개도 진행된다. 2022년 제4회 묘공학술상 우수상 수상자인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미래 한국불교를 위한 묘공 대행의 생애와 사상 재조명: 탄신 100주년 전시회를 가정하여'를 발표한다.

한편, 국제학술대회와 계절발표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양주 회암사지 승탑 면면을 살피다

9월 5일 회암사지박물관 학술대회

여말선초 고승 상장례 연구부터
승탑 양식, 분사리 문화 등 조명

양주 회암사지에는 여말선초의 고승인 지공(指空, ?~1363), 나옹 혜근(懶翁惠勤, 1320~1376), 무학 자초(無學自超, 1327~1405) 삼화상의 승탑과 탑비가 있다. 당시 불교중흥을 이끌었던 세 고승의 승탑을 학술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9월 5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여말선초 회암사의 공간과 승탑'을 주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한국미술사학회가 주관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여말선초 승려의 상장례 문화부터 분사리 문화, 승탑 양식 등 회암사지에 전해지는 삼화상 승탑 전반을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김수연 이화여대 교수는 '고려시대 승려의 상장례 문화와 회암사 승탑의 의미' 주제 발표를 통해 12세기 초 고려에 도입된 '선원청규'가 당시 스님들의 상장례 문화에 영향을 끼쳤음을 조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12세기부터 다비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는데, 이때 고승들이 왕이나 재상에게 보내는 유언장이 등장한다. 이러한 유언장들은 12세기 초 고려에 들어온 '선원청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선원청규'에는 고승의 장례 때 유언장을 작성해 주변 사찰에 보낼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공민왕 대에는 '칙수백장청규'가 도입됐고, 이 청규가 나옹 혜근의 장례에 적용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교수는 "고승의 장례 절차를 서술한 '칙수백장청규' 천화 항목을 살펴보면 주지가 입적했을 때 다비 후 의장을 갖춰 영골을 침당에 두었다가 탑 안에 봉안한다고 기술됐다"며 "'나옹화상어록'에 기술된 나옹 혜근의 영골을 맞이하는 과정도 청규와 같다. 이는 청규의 장례 절차가 나옹 혜근의 장례에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9월 5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여말선초 회암사의 공간과 승탑'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다만 무학 대사의 경우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성리학을 기치로 건국된 조선에서 왕사(王師)의 입지가 약해졌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회암사 승탑의 연원과 중국, 일본 승탑 전통과의 상호 관계(오호석) △고려~조선시대 분사리 문화와 부도의 건립(엄기표) △고려 말 네 사찰의 나옹 혜근 승탑: 건립 동기와 불교사에 미친 영향(마르코 트롬베타) △고승 추모로 창출된 새로운 조형 질서(성서영) △회암사지 승탑과 조선왕실 석조물 편년에 대한 두 가지 관점(김민규) 등이 발표됐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런던서 평화 기도하는 일본인 스님 '화제'

40년간 평화 위한 걸음
불사리탑서 매일 예불


런던 배터시 공원에 살며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나가세 교로 스님.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40년 넘게 런던 공원에 살며 불사리탑을 관리하고 세계 평화를 기도한 스님이 화제다.

해외불교 전문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9월 4일 '런던 평화의 스님'으로 알려진 나가세 교로 스님의 삶을 보도했다. 교로 스님은 1984년 일본 일련종 계열 종단 묘호지(日本山妙法寺)가 세운 런던 배터시 공원의 '세계 평화의 불사리탑' 옆 창고를 개조해 거주하며, 매일 새벽 예불 후 염불을 하며 탑과 공원 부지를 돌며 세계 평화를 기도한다.

교로 스님은 "200에이커(약 80만㎡)가 넘는 영국의 공원 부지에 사는 스님은 내가 유일하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반핵·반전 시위에 참여하고, 매년 나가사키 원폭 투하일(8월 9일)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불사리탑까지 이어지는 종교 간 평화걷기를 이끌고 있다.

1951년 일본 나고야 근교에서 태어난 그는 1970년대 인도 여행 중 세계평화 사리탑에서 스님들이 북을 치고 염불하는 것에 매료된 이후 스리랑카에서 불사리탑 건립에 자원한 뒤 출가했다. 이후 종단의 종지를 실천하며 세계 각지에서 평화 걷기를 이어 왔다. 뉴올리언스에서 뉴욕까지, 체르노빌과 9·11 테러 현장까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몸이 지쳐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행진을 하고 싶다"면서 평화 기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세계 평화를 위해 염불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길임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中 허난성 불교협회, 청정계율수호 다짐

소림사 전 주지發 스캔들에
"깊은 반성…경각심 갖고 시정"

소림사 전 주지 스융신(釋永信)의 스캔들이 중국불교계를 흔들면서, 소림사가 위치한 허난성의 허난성 불교협회가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9월 4일 중국 '글로벌 타임즈'는 허난성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게시물을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스융신(본명 류잉청)은 1999년 소림사 주지에 오른 뒤 사찰을 문화 브랜드화 하며 'CEO스님'으로 불렸다. 2000년대 초에는 '허난소림사'란 회사를 세우고 700여 개 상표를 등록해 연 매출 12억위안(약 2300억원·2019년)을 올리며 해외 지사도 설립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네 차례 지내며 정치적 입지도 다졌다.

그러나 2015년 제자들과 피해자들의 제보로 성추문과 공금 횡령 의혹이 드러났다. 사업과 사찰 자금 횡령 및 사적 운용 혐의와 함께, 여러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생아까지 두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중국불교협회에서는 지난 7월 27일 그의 멸빈을 선언하며 "불교계 명예를 훼손하고 출가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스융신 스캔들 이후 중국불교계에 출가자의 부적절한 행동과 사찰의 지나친 상업화 문제가 잇따라 폭로됐다. 이에 허난성 불교협회는 "눈을 보호하듯 수행정진하며, 청정한 마음을 수호하듯 계율을 지키도록 출가자들을 지도하겠다"면서 "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여 일체 유정을 이롭게 하는 불교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허난성 불교계의 계율 위반과 지나친 상업화 문제에 대해 "깊은 반성과 경각심을 갖고, 기준에 따라 철저히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쉬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문의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성지순례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리-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형태 없는 것을 보고 소리 없는 것을 듣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특별전
종정 성파 대종사 작품세계 조명
100m 한지·옻칠 시리즈 등 3점
“한 장의 종이에 전체가 담겨”

청주=글 여수령 기자 · 사진 정현선 작가

전시장 전체를 한 장의 한지가 감싸고 있다. 언뜻 보기엔 그저 ‘빈 종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섬유질이 얽혀 만들어 낸 질감이 드러난다. 이 미세한 결들은 무수한 각자의 세계이자, 또 하나의 세계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특별전 ‘성파선예전(性坡禪藝展)-명명백백(明明白白)’은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 전시다. 제목 ‘명명백백’은 일체의 꾸밈이 없이 순수한 본질 그 자체를 추구하는 철학적 선언이다.

이번 전시에는 성파 스님이 직접 전통 방식으로 뜬 폭 3m, 길이 100m에 달하는 한지작품 ‘명명백백’과 자작나무에 옻칠과 자개 가루로 장식한 ‘별들의 향연’, 한지에 옻칠 연작 ‘공에서 색으로’가 선보인다. 순백의 한지가 감싼 공간 안에 다른 두 작품을 두고, 신발을 벗고 앉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칠흑의 심연에서 자개 가루가 은은히 빛을 밝히는 작품 ‘별들의 향연’은 마치 밤하늘에 흩뿌려진 별빛 같다. 어둠과 빛이 만들어 내는 원은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하다.

‘공에서 색으로’는 흰색 한지 위에 펼쳐지는 색의 향연이 공에서 색으로, 무에서 유로 이어지는 순환의 흐름을 보여 준다.

9월 10일 전시장을 찾은 성파 스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에게 작품의 의미를 직접 설명했다. 스님은 “한지는 멀리서 보면 그저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실오라기 같은 가닥들이 모여 거대한 한 장의 종이를 이룬다”며 “이는 곧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작품 ‘별들의 향연’ 앞에 마주 앉은 성파 스님과 문 전 대통령 내외.


‘성파선예전’ 전시장 전경.

이어 성파 스님과 문 전 대통령 내외는 검은 옻칠 속에 반짝이는 자개 가루를 품은 ‘별들의 향연’ 앞에 마주 앉았다. 성파 스님은 “공(空)에서 색(色)으로, 없는 것[無]에서 있는 것[有]으로 이어진다. 하나도 없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며 “진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곁에 다 있기에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성파 스님의 설명을 들은 후 “원래 마음자리가 색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스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훌륭한 법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성파 스님은 “강재영 청주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이 수년 전부터 찾아와 한지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이면 좋겠다고 제안해 이번에 내놓게 됐다”며 전시장이 100m의 한지작품을 선보이는 데 적합한 공간이라는 데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재영 예술감독은 “이번 특별전은 고요한 침묵이 흐르는 공간 속에서 형태가 없는 것을 보고, 소리가 없는 것을 듣는 전시”라고 소개했다.

이날 특별전을 관람한 법산 스님(전 조계종 법계위원장)은 한지작품 ‘명명백백’에 대해 “한 올 한 올의 섬유질이 연결되어 하나의 종이가 되듯, 우리 모두도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작품”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특별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 보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성파 스님과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날 청주비엔날레 본전시와 초대국가 타이전 등을 둘러봤다. 특히 지난 3월 경북 산불 때 화마를 입은 고운사의 종각과 당시 소방관들의 진화복, 진화 장면 등을 소재로 만든 ‘검은 산’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⑩ 불일불이

단음이 아니라 화음이다

얼마 전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인상 깊었다. 남북 간 적대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원효 대사의 ‘불일불이’ 철학으로 평화 통일을 지향하겠다고 답했다. 남과 북은 하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둘도 아닌 관계라는 것이다. 남북은 흡수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며[不一], 영구히 대립하는 적대적 관계도 아니다[不二]. 상호 인정과 교류, 협력의 토대 위에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일불이’는 대승경전 곳곳에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나가르주나의 〈중론〉 첫 품인 ‘관인연품’의 첫 구절, 여덟 가지 중도의 가르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존재는 “(새롭게) 생기지도 않고 (완전히) 소멸하지도 않으며, 항상하지도 않고 단절되지도 않는


不一不二

다.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어디선가)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론가)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한다.

씨앗과 열매의 관계를 보자. 씨앗이 곧 열매일 수 없고, 열매가 곧 씨앗일 수도 없다[不一]. 그러나 완전히 별개도 아니다. 수박은 씨앗을 말미암아 생겨나며, 씨앗은 수박이라는 열매를 통해 비로소 ‘수박씨’라 불린다[不二]. 생각과 말 역시 그렇다. 생각이 곧 말이 아니고, 말이 곧 생각은 아니다[不一]. 그러나 말은 생각을 반영하고, 생각은 말을 통해 드러난다[不二].

서구 철학자 들뢰즈 또한 존재를 동일성에 환원하거나 ‘단순한 다수성’으로 나누지 않았다. 그는 존재를 ‘차이의 생성’으로 이해했는데, 이는 불일불이의 연기론과 통한다.

오늘날 사회는 대립과 갈등 속에서 화합을 갈망하지만, 그 ‘하나 됨’은 종종 억압과 불평등을 낳는다. 이는 “내가 절대적으로 옳으니 너도 같아야 한다”는 획일적 발상에서 비롯되며, 다름을 배제하는 전체주의로 이어진다. 〈논어〉는 이를 경계하며 “소인은 동조만 하고 조화를 추구하지 않으며(同而不和), 군자는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휩쓸리지 않는다(和而不同)”라고 했다.

불교가 말하는 하나 됨은 불일불이의 관계론이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면서, 동시에 하나이자 둘이고 둘이자 하나인 관계다. 이 사유는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대화와 조화를 통해 공존을 지향한다. 바흐와 베토벤의 음악을 떠올려 보라. 여러 독립된 선율이 동시에 어우러져 하나의 장대한 명곡을 완성한다. 대위법은 음악의 복합성과 아름다움을 더하며, 다양한 선율을 함께 울려 풍부한 화음을 만든다.

우리 사회가 바라는 ‘한목소리’란 획일적 단음이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화음이다. 그러한 화음은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관계의 법칙’에 충실할 때 가능하다.

〈화순 불암사 주지〉

빛나는 청춘들과 함께한 불교문화대전

조계종 9~10일 동국대 일원서



‘2025 불교문화대전 天上天下 You Are the Only One’이 9월 9~10일 서울 동국대 일원에서 열렸다.〈사진〉

올해 불교문화대전은 기존 공연·전시 중심의 행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국대 취업박람회 ‘2025 JOB & CAREER FESTIVAL’과 연계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 앞서 본관 남산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정각원장 제정 스님,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성원 스님은 개회사에서 “올해 불교문화대전은 동국대 취업박람회와 연계해 학문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귀한 자리”라며 “진로와 미래를 모색하는 청년들에게 불교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불교문화대전에 마련된 강연과 불교문화체험은 학생들에게 삶의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 시간과 지혜를 선물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막식 이후에는 최태성 한국사 강사가 ‘불교 역사를 통해 보는 삶의 지혜’를 주제로 불교인문학 강연을, 10일에는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이 선명상 강연을 진행했다.

동국대 팔정도 광장 및 법학관 일원에서는 △선명상 체험 △지화 연꽃 만들기 △출가 상담 △사찰음식·템플스테이 홍보 등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팔정도 광장에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음악회가 열렸다.

신중일 기자



팔정도와 간화선의 수행 방법 중도로 융합!
현대인을 위한 간화선
간화선의 수행 방법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우리 삶을 실천과 자비로 이끌고, 이를 통해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제시한다.
오용석 저/신국판/328쪽/값 23,000원

부처님의 교법과 수행의 핵심을 한 권에!
시골 농부의 마음공부
수행과 농사일을 병행하며 살아가는 귀촌 농부가 그동안 공부하고 닦은 바, 즉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과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김일문 지음/국판/양장/256쪽/값 17,000원

동화로 읽는 보왕삼매론!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고 경책해야 할 10가지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보왕삼매론」을 어린이들이 생각해볼 수 있게 재미있는 동화로 각색하였다.
한상희 글, 용정운 그림/사륙배판 변형/108쪽/값 12,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한가위 보름달, 템플스테이 하며 맞아 볼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

전국 30여 사찰에서 운영
송편 빚기, 고민 상담부터
선명상, 달맞이까지 '다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하동 쌍계사 추석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송편 빚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불교문화사업단

올해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 가량을 쉴 수 있는, 말 그대로 '황금연휴'다. 이 같은 연휴에는 국내외 여행지는 어디든 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럴 땐 도심과 관광지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를 찾아가 보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추석을 맞이해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는 전국 30여 곳의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진행되며 송편 빚기, 달빛 포행, 전통 문화 체험 등의 시즌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긴 연휴가 유독 쓸쓸한 솔로라면 화성 용주사의 '솔로들을 위한 추석특집 수행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10월 4~6일 2박 3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요가니드라 △소리명상 △만다라 그리기 △108배 수행 △소리명상 등 수행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오는 11월 13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경산 선본사에서 갓바위 부처님을 친견해 보는 건 어떨까. 10월 5~9일 진행되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갓바위 부처님과 놀던 달아~추석 템플스테이'에서는 갓바위 부처님 친견과 선본사 팔상성도 설명 듣기, 108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명상 수행을 체험하고 배워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운영된다. 인천 연등국제선원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6박 7일 동안 '선명상 집중수행'을 운영하며 △성주 자비선사 '선명상 템플스테이'(10월 7~9일) △영천 은해사 '신선한 선명상 템플스테이'(10월 6~7일) 등도 만날 수 있다.

고민을 해소하고 싶다면 스님에게 상담과 멘탈코칭, 선명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남양주 봉인사 '한가위 고민 템플스테이'(10월 3~9일)를 추천한다.

문화사업단은 "어느 때보다 긴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다양한 계층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준비했다"면서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를 통해 지치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에 '쉼'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 2025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

권역	사찰명(지역)	프로그램명	진행 기간	프로그램 소개
서울	화계사	한가위 禪 시간_ '달을 기다리며', '달이 진 뒤에'	10/4~10/8	송편 빚기, 윷놀이, 달빛명상, 한가위 새벽숨 · 햇살숨
	국제선센터	2025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	10/5~10/7	자개전통미니찻상 만들기, 선명상, 템플보드게임, 초공양
인천	연등국제선원	연등국제선원 선명상 집중 수행(6박7일)	10/3~10/9	선명상 집중수행
세종	영평사	영평사 추석 달맞이 템플스테이	10/5~10/7	선명상, 추석합동차례, 성불도 놀이, 백련꽃 차담, 달맞이 포행
경기	봉선사(남양주)	마음의 쉼, 손끝의 향기 추석맞이 전통디저트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9/26~9/27	양갱 만들기, 비밀의 숲 산책 명상
	법륜사(용인)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 "보름달처럼 둥근 내마음"	10/4~10/6	타종과 맥놀이, 붓다볼명상, 바디스캔명상, 산사의 여유 즐기기
	용주사(화성)	솔로들을 위한 추석특집 수행 프로그램	10/4~10/5	요가 니드라, 하트명상, 소리명상 & 지버리쉬, 만다라그리기(심리치료)
	봉인사(남양주)	한가위 고민 풀기 템플스테이	10/3~10/9	스님과 고민 상담, 멘탈코칭, 나 사랑 선명상, 수목원 걷기 선명상
	육지장사(양주)	달.소.원-달빛에 소원을 담다	10/6~10/9	소원등 만들기, 달빛명상, 숲속보행명상
	대원사(가평)	절로 절로 만사여의	10/3~10/11	108배 합장주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선명상, 숲길 포행
강원	낙산사(양양)	제46차 추석 특집 "아득한 성자"	10/5~10/7	추석 합동차례, 송편 빚기, 윷놀이, 파도명상 및 달맞이
	백담사(인제)	제18회 한가위 어울림 템플스테이	10/6~10/8	한가위 달빛명상, 성불도 게임, 자비명상, 숲 포행
충북	반야사(영동)	한가위(추석) 황금 템플스테이	10/5~10/7	추석차례, 성불도 놀이, 한가위 달맞이, 다라니사경
	석종사(충주)	석종사의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 진월만월(眞月滿月)	10/5~10/6	송편 빚기, 달빛 명상, 추석합동차례, 진월돈월(진월스님의 Don't worry)
	법주사(보은)	2025년 한가위 템플스테이	10/5~10/7	향기명상(천연오일을 이용한 테라피), 추석차례, 달빛 걷기 명상
충남	마곡사(공주)	마곡사 한가위 스테이	10/5~10/7	추석차례, 송편 빚기, 보름달명상, 군왕대 오르기, 백범 김구 명상길 걷기
	한국문화연수원(공주)	알밤 쿵 추석템플스테이	10/3-10/6	알밤 줍기, 알밤떡 만들기, 백제문화유산 관람, 백제복식 체험
전북	내소사(부안)	2박3일 추석 1템3사 사찰순례 (내소사, 선운사, 개암사)	10/7~10/9	문화유산 탐방, 도솔암 탐방, 스님과 차담, 모닥불 피고 고구마 구워 먹기
	서고사(전주)	달빛산행. 달빛옥상 드러누어봐	10/4~10/9	달빛 산행, 달빛 옥상 드러누어봐
전남	대흥사(해남)	대흥사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	10/5~10/7	송편 빚기, 추석합동차례, 연꽃등 만들기, 일지암 산행
	신흥사(완도)	추석연휴 템플스테이	10/1~10/12	예불, 포행, 명상
	용흥사(담양)	한가위 피로 회복 템플스테이	10/8~10/10	소원등 만들기, 달뫼수바레길 및 용흥사 계곡 함께 거닐기
	향일암(여수)	2025 향일암에서 한가위 민속놀이 대축제	10/3~10/9	보름달 소원 빌기, 별 바라보기, 한국전통민속놀이, 명승지에서 해돋이
경북	선본사(경산)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갓바위 부처님과 놀던 달아~~~ 추석 템플스테이	10/5~10/9	갓바위 부처님 친견, 선명상, 3층 석탑 다녀오기
	심원사(성주)	추석연휴 템플스테이	10/3~10/11	예불, 공양, 인연더하기(나에게 쓰는 편지)
	자비선사(성주)	추석 특별 선명상 템플스테이 ; 달빛, 마음을 비추다.	10/7~10/9	주지 스님에게 마음을 묻고 길을 듣다, 자비선명상, 소원지 작성하기
	감산사(경주)	한가위 쉼,돌봄 템플스테이	10/3~10/9	송편 빚기, 윷놀이, 공기놀이, 호미길산책, 보름달빛 구경
	은해사(영천)	은해사 한가위 '선선한 선명상 템플스테이'	10/6~10/7	크리스탈 싱잉볼 치유명상, 달빛행선, 다선일미 차명상, 마음거울명상
경남	성주사(창원)	한가위 보름달빛 템플스테이	10/5~10/11	보름달빛 아래서 싱잉볼 연주로 쉼의 시간을 선물하기, 춤 명상
	문수암(산청)	2025년 한가위 템플스테이	10/1~10/4	송편 빚기, 소원등 만들기, 탑돌이
	쌍계사(하동)	2025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	10/3~10/9	윷놀이, 송편 빚기, 주지 스님 특별명상차담, 추석합동차례
	대원사(산청)	2025년 가족과 쉬어가는 한가한 한가위	10/5~10/8	스님과 차담, 대원사계곡길 포행, 108배 및 예불, 탑돌

신뇨엔 문화전법 산실 '키요사토미술관' 30돌 맞다

9월 6일, 일본 야마나시현 코후시에 위치한 키요사토사진미술관 앞마당은 정오부터 세계 각국의 사진작가들로 붐볐다. 삼삼오오 모인 이들의 어깨에는 카메라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그동안 찍어온 사진집이 들려 있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초가을에 열린 키요사토사진미술관 개관 30주년 기념식은 세계 사진계의 축제였다.

기념식 무대가 마련된 로비에는 12개국에서 모여든 작가들이 자리를 메웠다. 이들 가운데는 이미 세계적인 사진가도, 이제 막 자기 작품을 선보인 신진 작가도 있었다. 서로의 언어는 달랐지만, 사진이라는 공통의 언어는 그 간격을 좁혀주고 있었다.

기념식의 막이 오르자 사회자는 키요사토사진미술관의 지난 30년 역사를 소개했다. 일본 불교법인 신뇨엔(眞如苑, 진여원)이 개조(開祖) 이토 신죠의 가르침에 따라 1995년 설립한 이 미술관은 '생명에 대한 공감', '전통 사진기법 보존', '젊은 사진가 양성'이라는 세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특히 인재 양성 사업으로 '영포트폴리오(Young Portfolio)'라는 이름 아래 35세 이하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해 왔다. 그동안 86개국 1만 2000여 명이 응모, 880명 6000여 점이 선정됐다.

기념식에 참석한 미국 데보라 크로치코 샌디에이고미술관 명예관장과 대만 션 자오리앙(沈昭良) 작가 등 세계적인 사진가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실질적으로 구매하고 전시까지 하는 키요사토 사진미술관은 사진작가들의 산실(産室)"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재홍 대전포토



세토 마사토 키요사토미술관장(사진 왼쪽)과 데보라 크로치코 샌디에이고미술관 명예관장(사진 오른쪽)이 두 미술관의 비전을 담은 기념품을 교환하고 있다.

9월 6일 개관 30주년 기념식
'영포트폴리오'로 사진계 후원
韓사진계에 전시 등 도움 손길
사진미술관 신축 계획 공개해
조용한 후원서 적극 활동 예고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2024 부산국제사진축제 최우수상 수상자인 한효진 작가 등 다수의 한국 중견 사진작가들이 참석했다. 이는 키요사토사진미술관이 한국 작가 65명의 작품 398점을 소장할 정도로 적극 후원해 왔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키요사토 사진미술관은 올해 6월 대전포토페스티벌을 후원하며 소장 작품을 한국서 선보이기도 했다. 30주년 기념식에서도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특별히 전시됐다.

전재홍 조직위원장은 "전 세계 젊은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후원하는 숭고한 노력을 30년간 꾸준히 이어 온 것은 감동 그 자체"라며 "작품이 처음 인정받는 그 기쁨이 일생동안 작품활동을 하는 바탕이 된다. 신뇨엔과 키요사토사진미술관의 후원은 단순한 예술 지원을 넘은 인류애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토 마사토 관장은 단상에 올라 "앞으로 미술관을 넘어 젊은 사진가들의 감성과 경험이 교차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와의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다.

기념식 2부 행사에서는 키요사토사진미술관의 새로운 비전이 공개됐다. 바로 고원지대인 호토쿠시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후지산 자락의 가와구치 호숫가로 확장 신축 계획을 발표한 것. 가와구치 호숫가에는 신뇨엔 야마나시별원이 위치해,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일본 밀교 전통의식인 제등호마의식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등롱축제 등이 열린다.

신뇨엔을 대표해 세이지 니시카와 교무장은 "개조 이토 신죠 님의 인재양성과 문화진흥에 대한 가르침에 따라 30년 전 이 자리에서 미술관이 건립됐다. 그때 현장에서 느꼈던 감동이 오늘 그대로 전해진다"며 "또 다른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겠다. 신뇨엔은 더욱 적극적인 문화 예술 분야의 사회공헌을 위해 가와구치 호수에 새롭고 더 큰 사진미술관을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도쿄=노덕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0~9/16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서른부터 다가온 반야심경의 행복	정찬주	다연
2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목경찬	불광출판사
3	서장-간화선의 교과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조계종출판사
4	인연 아닌 사람은 있어도 인연 없는 사람은 없다	묘장	불광출판사
5	있는 그대로 좋아(부처와 돼지2)	고이즈미 요시히로	들녘
6	묘법연화경	광우, 정목	김영사
7	인과경	지묵	우리출판사
8	육조법보단경-덕이본	김호귀	토파민
9	백장어록	김태완	침묵의향기
10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원영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송한글 화엄경	해주 초역	불광출판사
2	요가디피카(아행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행가/현천 역	선요가
3	일상에서의 호흡 명상숨(빨리어호흡관법경강의)	래리 로젠버그/마산	한언
4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대념처경과그주석서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불교의 이해와 신행(조계종신도교재2)교리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화 :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탁낫한/허유서,허주형	운주사
7	화림산책:스님이한시로들려주는소소한삶의이야기	묵암 강대인	맑은소리맑은나라
8	가장 행복한 공부(청화큰스님말씀)	청화 지음	아시아문화커뮤니티
9	홍차학 개론	정영숙	차와문화
10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초기불전003)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깨달음의 순간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홀연히 깨어나는 신심명

원제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 2만원

584자에 담은 깨달음 요체

생생한 경험 바탕으로 강설

'마음의 중심' 찾는 나침반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홀연히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다. 가만히 떠가는 구름을 보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고, 그렇게 세상은 아름답다' 느끼기도 하고, 돌에 기대 쉬고 있다가 문득 '내 몸의 호흡과 관계없이, 세상이 자기만의 고른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대승기신론〉에 따르면 '홀연(忽然)'은 "우리가 본래 진리의 자리에서 벗어나 무명과 번뇌의 중생으로 변화하게 된 순간"을 가리킨다. 시간의 개념도, 인과의 개념도 아닌 '홀연'은 어쩌면 우리를 다시 부처의 자리로 돌려놓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원제 스님(김천 수도암)은 〈신심명〉에서 이런 '홀연한 순간'을 마주한다. 해인사로 출가 후 은사 도림 법전 스님(전 조계종 종정)에게 받은 〈성철 스님의 신심명·증도가 강설〉을 매일 읽다, 〈신심명〉과 〈증도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게 됐고 틈날 때마다 한글과 한자로 노트에 옮겨 쓰며 그 뜻을 헤아렸다. 그때의 인연이 이 책 〈홀연히 깨어나는 신심명〉으로 이어졌다.

〈신심명〉은 146구 584자로 수행과 마음, 신심과 깨달음의 요체를 함축적으로 노래한 시문(詩文)이다. 선(禪) 문학의 정수로 평가 받는 고전이지만, 함축적 문장을 단박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며 통연히 명백하니라."



원제 스님.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신심명〉의 첫 구절을 두고 원제 스님은 대학 시절 경험을 떠올린다. 다른 사람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한 장난을 치는 친구 때문에 며칠간 괴로워하던 때,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겨난다'는 문장을 보고 홀연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다.

스님은 "사흘간의 지독하고 혼란스러웠던 고통은 이 문장 하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른다"며 "나로부터 풀려나면 세상을 통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에 '통연명백'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풀려남으로써 세상을 온전한 불국토로 맞이하게 된다는 분명한 선언"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스님은 선방에서 겪은 수행의 좌절, 감정의 파고, 번민과 깨달음의 순간을 토대로 〈신심명〉을 풀이한다.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는 경험들은 깨달음이 홀연 일상에 드러나는 순간이다.

"수행이란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을 차츰차츰 끄는 행위입니다. … 내가 가진 등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틀이며 관점입니다. 내가 특정한 틀을 지니게 된다면, 우리는 고작 코앞에 있는 조그만 영역만 밝힐 뿐입니다. 하지만 나의 등불을 스스로 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달빛이라는 거대한 등불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휘몰아칠 때, 〈신심명〉의 한 구절을 읽고 뜻을 새긴다면 마음의 중심을 잡게 도와줄 한 문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삶을 철저하게 통찰하는 '간화'

〈看話〉



현대인을위한 간화선

오용석 지음

운주사 / 2만3000원

중도적 입장서 통합·구조화

일상 속 간화선 수행법 제안

삶은 곧 생존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을 넘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한다. 그래서 자신과 세계를 향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모색한다. 이 과정을 우리는 '구도(求道)'라 이름한다.

이 책은 '간화선(看話禪)'을 구도의 구체적 수행법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간화선은 어떤 행위를 문제 삼기보다 바로 그렇게 행위하는 당체(當體)를 직접 겨냥해 우리로 하여금 뿌리 깊은 자아의식과 집착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고 말한다. '진리'조차도 탐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간화선'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사들의 말씀을 소개하는 데 주력한 책들과 달리, 간화선의 핵심적 수행법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장에서는 간화선에서 '중도'의 의미를 살핀다. 특히 반야중관학의 입장에서 선불교의 중도가 갖는 교리적·수행적 의미를 짚는다.

2장에서는 간화선에 마음을 돌이키는 반조(反照)의 특성이 있으며, 그것의 사상적 구조가 팔정도의 중도에 기반함을 살핀다.

이어 △3장 선불교의 몸·마음에 나타난 중도 △4장 선불교의 수행·깨달음 △5장 간화선의 화두참구 △6장 화두의식의 낙처에서는 간화선을 중도적 입장에서 통합하고 구조화해 현대적으로 조명한다.

7장 '간화선과 사회·자비행'에서는 선불교와 사회의 관계에 주목하고, 8장 '간화선과 삶'에서는 '간화'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한다.

저자는 "화두를 살피는 '간화'의 행위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철저하게 통찰하겠다는 발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간화선 수행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자비의 실천이라는 보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한다.

예순에 부처의 길을 걷다



너에게 미치도록 걷다

박인식 지음

생각정거장

1만9000원

100일간의 네팔 · 인도 순례길

독특한 기행문학 · 15주년 복간

2010년, 저자는 나이 예순에 두 명의 길동무와 '부처의 길'로 떠났다.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를 시작으로 깨달음의 땅 보드가야, 최초 전법지 사르나트, 열반지 쿠시나가르까지 불교 4대 성지를 거쳐 최초의 비구니 탄생지 바이샬리, 불교 3차 결집지 파트나, 영취산이 있는 라즈기르까지 '부처의 길'을 빠짐없이 걸었다.

100일 동안의 기행은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이었다. 저자는 "감히 그 길을 걷고 나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되고자 한 것은 아니"라며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결에 오래 잊었던 영원과 불멸과 자유의 속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져 볼 수 있기"를 바랐다.

첫 여정인 룸비니에서는 짙은 안개 속에서 '하늘과 하늘 사이에 나 홀로 존귀하다'는 탄생게를 새기고, 카필라성 궁터에서는 싯다르타 왕자의 고뇌와 출가의 순간을 떠올린다. 때로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때마다 자신에게 말한다.

"부처가 태어난 데서부터 걸어온 사람이다. 하지만 아직 내가 누군지는 모른다. 그걸 알고 싶어 부처의 길을 따라 끝까지 걸어 보려 한다."

부처님의 다비터 위에 세워진 라마르바르 스투파에서 여정을 마친 저자는 '이미 부처 곁으로 가 버린' 이들을 떠올리며 되뇐다.

"걸음은 끝나도 길을 끝나지 않았다. 길은 영원했다. 길은 불멸을 기약했다. 길은 자유였다."

저자는 월간 '사람과 산' 발행인 겸 편집인을 역임했다.

네팔인이 전하는 네팔의 속살



지극히 사적인 네팔

수잔 샤키야 · 홍성광 지음

틈새책방 / 1만8000원

'나마스테' 뜻부터 역사·일상 소개

구르카 인터뷰 등 담은 개정증보판

틈새책방이 펴내는 '지구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시리즈의 인기작 〈지극히 사적인 네팔〉의 개정증보판이다. 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한 네팔인 수잔 샤키야와 홍성광 씨가 네팔의 속살과 사람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인사말 '나마스테'에는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중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부터, '있지만 없는' 카스트제, 히말라야 셰르파의 사연, 네팔의 독특한 달력과 국기 등 신기하면서도 매력적인 네팔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번 책에는 2022년 초판에 담지 못했던 두 편의 이야기가 수록됐다. 하나는 세계적 명성의 영국 왕립 구르카 소총연대 소속 파라스 구룽 하사와의 심층 인터뷰다. 혹독한 선발 과정과 자부심, 구르카에 대한 궁금증을 담았다. 다른 하나는 저자 수잔 샤키야의 부인 송현정 씨의 '네팔 문화 관찰기'다. 네팔의 대가족과 생활하며 겪은 문화 차이와 끈끈한 가족애를 엿볼 수 있다.

"한국 불교미술만의 독창적 세계,
드디어 만나는 신중도神衆圖"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선신善神들,
그 장엄한 세계를 해부한 최초의 연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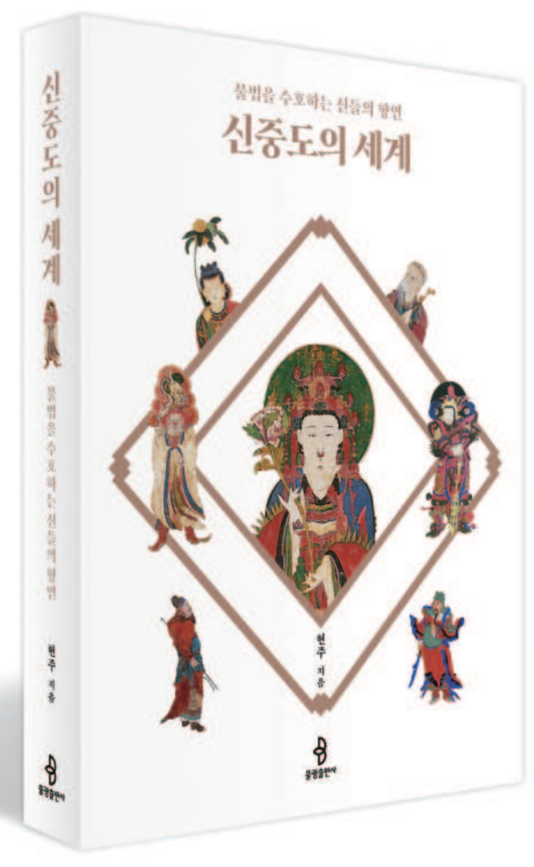
신중도의 탄생과 전개, 도상의 비밀을
세밀하게 파헤친 단 하나의 책!



신중도는 불교적 지식 없이는 거의 해석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道敎)의 신들도 섞여 있어 융·복합적인 시각과 끈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불화이다. 현주 스님은 이처럼 난해한 신중 그림을, 시기에 따른 양식적 특징까지도 포함시켜 참 쉽게도 설명해 주었다. 이 한 권이면 신중도가 더더욱 친밀해지고, 불화는 더 이상 도깨비 그림이 아니다. _동국대 명예교수 정우택

현주 스님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저자는 우리나라 신중도를 중점적으로 탐구한 연구자로서, 신중도 관련 학술논문만 13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재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중도의 세계

현주 지음

504쪽 | 올컬러

35,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리더에게 請하다

취임 2년 맞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태고종 문화유산 인프라 확대…혁신은 이제 시작입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취임 2년을 맞았다. 태고종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사실상 반환점을 돈 상황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의 시간 동안 상진 스님은 종단 대외 신임도를 높이고 내부적으로 종단 운영 시스템 구축, 지방종무원과의 소통 등의 행보를 이어갔다. 상진 스님이 뿌린 씨앗들은 이제 싹을 틔워내는 중이다. 최근 가장 많이 변화하고 있는 종단으로 ‘태고종’이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같은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태고종도들이다. 실제 중앙종회가 나서서 4년 단임을 4년 1회 연임으로 전환하는 종헌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일 잘하는 총무원장’이 추진하는 종책의 연속·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여론 때문이다. 이 같은 시류가 만들어진 데에는 상진 스님의 광폭 행보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9월 4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만난 상진 스님은 취임 2주년의 소회로 ‘감사’를 꼽았다.

“무엇보다 종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처음 1년은 시간이 더디게 갔지만, 방향이 잡히자 순식간에 2년이 지나가더군요. 그 과정에서 협조와 격려, 비판과 불만이 함께 있었지만 그 모든 반응이 종단을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다. 정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말은 ‘감사’입니다.”

취임 이후 성과에 대해서는 종조인 태고 보우 국사 선양 사업을 통한 ‘태고종 뿌리 찾기’를 첫손에 꼽았다. 상진 스님은 취임 이후 중국불교계와 함께 절강성(浙江省) 호주(湖州)에서 석옥 청공 선사와 태고 보우 국사의 법맥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했으며, 태고 보우 국사가 석옥 청공 선사에게 간화선법을 인가 받은 천호암에 ‘한중불교우호교류센터(법원루)’ 건립 불사를 추진 중이다.

“태고 보우 국사가 임제 선사의 19세 법손인 석옥 청공 선사에게서 불조의 정법을 고려로 가져옴에 따라 한국의 선법(禪法)은 정통성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태고종은 한국불교의 뿌리가 태고 보우 국사에 있음을 학술·의식·문화로 입증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올해는 국회에서, 내년에는 중국불교협회와 협력해 베이징에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태고 보우 선사 구도기를 바탕으로 문화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들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상진 스님은 각종 사회 이슈를 선점해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전개했으며 사회 각계 전문가들을 총무원장 직속 대외협력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싱크탱크 조직을 구성했다. 이는 앞선 태고종 집행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행보였다. 종단 체제를 3원장에서 5원장으로 개편해 숨은 인재들이 총무원 주요 소임을 맡도록 한 것도 주요한 성과였다.

“태고종은 오랫동안 종단 안팎의 여러 이유로 대사회 포교가 미진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역할을 사회에서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들이 선행돼야 했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도 의사 파업 문제, 계엄 논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문제 등 공공선과 역사 인식에 관한 사안에는 분명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불교계에서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공선을 위한 ‘뚝심’ 있는 메시지와 ‘신념’에 기반한 대외 행보는 정계와의 자연스러운 소통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종교지도자 오찬에서 조계종·천태종 총무원장과 함께 태고종 총무원장이 초청된 것은 태고종의 달라진 대외 위상을 보여 주는 장면이었다.

“특정 세력 편들기가 아니라, 한국불교와 태고종의 목소리를 제도권과 사회로 연결하려는 노력입니다. 과거에는 정계든 재계든 태고종을 잘 모르다 보니 대외 활동이 제약됐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종단 부장단과 실무자들에게 정계·지자체와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배우도록 권합니다. 서열, 관례에 갇히지 않고 당당하게 노력해서 기회를 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종도와 인연들에 감사
협조와 비판 모두 종단 운영의 동력”
태고 보우 국사 선양사업 등 성과
종단 대외 인지·신뢰도 확대 ‘자부’

11월 8일 광화문광장서 대형 법석
영산재·국제수계법회 봉행 예정
“계를 수지하는 것은 참회하는 것
참회하고 보살이 되자는 취지”

영산재보존센터, 선암사 수장고 등
무형유산 보존 전승 인프라 구축
염불명상 등 포교 방안도 계획

종단 내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는 ‘하심(下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소통의 기본은 하심입니다. 권위와 아상을 내려놓고 먼저 찾아가 듣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또 지방자치제에 준하는 ‘자율 운영’ 원칙을 강화했습니다. 사찰과 교구의 고유 재산과 일상 행정은 현장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고, 총무원은 지원·연결·조정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총무원장이 대중과 다를 바 없다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시간을 나누는 것이 화합의 시작입니다.”

“씨앗을 뿌렸으니 이제는 거두는 때”라고 밝힌 상진 스님은 임기 후반부에는 태고종의 강점인 전통문화·무형유산의 발굴과 보존·전승 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태고종은 의식·범패·작법 등 불교무형문화의 보고입니다. 태고종이 보유한 영산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40년이 넘었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지 15년이 지났죠. 또한 태고종 선암사에도 정말 많은 불교 유형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산재 전승센터·공연장과 유형유산들을 보존할 수장고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최근 협의를 진행했고, 긍정적 답변을 얻었습니다. 영산재 보존센터 건립을 통해 상설 시연 및 보존 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선암사 성보박물관 설립으로는 유물·자료의 수장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태고종만의 독보적인 콘텐츠 발굴·개발에도 노력하려 합니다.”

이 같은 종책 사업을 위해 상진 스님은 문화유산 관련 국가 예산 도입과 인재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국가 예산 도입은 지난 대선 당시 태고종이 발표한 ‘2025 국민을 위한 정책 자료집’에 담긴 사안과 궤를 같이한다. 태고종은 자료집을 통해 “‘국가유산법’ 등 관련 법령에 국가유산 유형별 비율과 특성을 반영해 인사와 예산, 조직을 배분하는 ‘비례성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단순하게 태고종에 문화유산 관련 예산을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전통사찰과 유·무형유산들을 태고종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보존·전승할 수 있도록 그간 관행적으로 특정 종단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예산 배정을 법과 원칙에 맞게 해 달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 모든 과정에서 부장단과 실무자들이 직접 뛰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종단 인재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변화된 종단 위상을 보여 주는 대형 법석을 계획 중이다. 태고종 총무원과 영산재보존회는 11월 8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일원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영산재 시연과 세계 7개국 고승 초청 국제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태고종도와 국내외 불자, 시민 등 1만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며,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불교문화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준비 중이다.

“국제수계법회는 국내외 선지식과 태고종도, 국내외 불자, 시민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적 법회입니다. 해동 율맥 수진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국내외 선지식들이 7증사로 참여하며 종정 예하와 제가 증명으로 참여합니다. 현장 접수 데스크를 설치해 지나가던 시민도 그날 보살계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스님에게 ‘왜 보살계를 수지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참회하는 삶을 살아 보살이 되기 위해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계를 받는 것은 ‘참회(懺悔)’하는 행위입니다. 참회는 보살행의 시작입니다. 1년 동안 지은 업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수계법회에서 단단히 참회하고, 하루만이라도 보살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서원하면 됩니다. 하루라도 보살이 되어 보세요. 하루가 또 하루가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모두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까지 상진 스님은 계획 중인 여러 종무행정·문화유산·청년포교 아이템들을 쏟아냈다.

“청소년 명상프로그램을 구상 중인데, 염불과 소리·공양 명상 등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가 명상임을 알리는 수행법입니다. 청소년·대학생들이 주도하는 민관협력 페스티벌과 불교 성지 순례 프로그램, 태고 보우 국사 음악축제 등도 추진해 보려 합니다. 이제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태고종은 문화와 포교가 강점인 만큼 이를 통해 변화와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태고종이 우뚝 서는 것, 그 성취를 위해 남은 시간도 전력으로 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도와 불자들에 대한 당부를 물었다. 이에 스님은 종도에겐 ‘애종심’을, 불자들에게는 ‘참회’를 요청했다.

“태고종도라면 무엇보다 애종심이 중요합니다. 종단이 먼저 무엇을 해주느냐보다, 우리가 무엇을 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자라면 매일 저녁 스스로를 돌아보며 참회하길 바랍니다. 저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망은 모래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의 성냄과 허물을 내려놓는 연습이 다음날의 미소를 가능하게 합니다. 태고종은 한국불교의 뿌리로서, 전통과 현재, 의식과 문화, 수행과 공공선을 연결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상진 스님은…1991년 4월 철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2011년 11월 혜초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4년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했고, 2022년 진각종립 위덕대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학생과장을 시작으로 동두천 광덕사 주지, 마산 원각사 주지와,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 교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양주 청련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청련사 안정불교대학 강주, 양주불교사암연합회 명예회장, 고려대 불자교육회 지도법사 등을 맡고 있다. 사진=정현선 작가



올해 2월 24일 태고종을 방문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상진 스님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중국 호주 천호암에서 진행된 법원루 기공식에서 상진 스님 등이 시삽하고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35 보시의 마음으로



▶한줄 요약
보시(布施)란 걸림에 따른 번뇌와 고민을 비우는 수행입니다. 그러니 뺏기거나 잃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고 흔연스런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는 습(習)을 가꿔 나가십시오.

보시, 번뇌·고민 비우는 수행

‘사람 人’,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의미
남 돕기 위해선 자신의 삼독심 비워야
본래 내 것 없어…잠시 머무는 것일 뿐
보시 통해 집착하는 습관들 바꿔 나가길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지옥에서는 숟가락이 길어 스스로 먹지 못하고
극락에서는 긴 숟가락이라도 서로 먹여 준다 하네.
내 먹겠다 욕심내면 스스로 먹지 못하고
남 위해 보시(布施, 베품)하면 내게 복(福)을 먹여 준다네.

만약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홀로 남겨졌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다른 것은 모두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먹는 것부터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원수라도 옆에 있기를 바랄 겁니다.

한자의 ‘사람 인(人)’자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위해 쓰기를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이라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돕는다’는 의미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노력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여 남을 돕는 의미가 더 큽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는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자신의 ‘삼독심(三毒心)’을 비워야 합니다. 물이 정체되어 있으면 썩게 되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은 서로 윤활하게 오고 가야 그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경제(經濟)’도 눈을 굴리면 큰 눈덩이가 만들어 지는 것과 같이 막힘없이 주고받는 가운데 더욱 번성하는 겁니다.

그릇에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으면 값진 보석이 생긴다 해도 담을 공간이 없어 더 이상 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릇을 제때 비워야 더욱 소중한 것을 담아 낼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는 작은 구덩이라도 파고 묻어야 하듯이 더욱 소중한 것을 심기 위해서는 있는 것을 우선 퍼내야 합니다.

본래 내 것이란 없습니다. 들고 나는 인연 따라 잠시 머물렀다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우주의 질서요, 공(空)함의 진리입니다.

보시(布施)란 걸림에 따른 번뇌와 고민을 비우는 수행입니다. 그러니 뺏기거나 잃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고 흔연스런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는 습(習)을 가꿔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공덕은 부메랑이 되어 엄청난 복(福)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후에는 반드시 밀물이 밀려옵니다. 이러한 이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혹여 나가는 것이 있다 한들 그리 애석치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명상]
사랑한다는 것은 기쁨과 슬픔의 쌍둥이 아이를 갖는 것.
한 아이는 키우고 한 아이는 버릴 수 있겠는가.
두 아이를 모두 키울 수 없다면
애초에 사랑이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지 말지니….

불가(佛家)에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니, 애초에 사랑을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위해 집착하는 마음의 감정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모습이란 낮과 밤과 같고, 밀물과 썰물과 같고, 여름과 겨울과 같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과 같고,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은 것과 같고, 올라가면 내려와야 하는 것과 같고, 멀리 가면 돌아오는 길이 먼 것과 같고, 앞이 있으면 뒤가 있는 것과 같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것과 같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의 감정이 서로 교차하여 윤회(輪廻)하게 되는 인과(因果)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생각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두 가지의 감정을 벗어날 수 없으니 마치 늪에 빠져 발버둥치며 허우적거릴수록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때문에 수행(修行)이란 두 가지의 상대적인 마음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참선(參禪)인데, 선(禪)이란 분별하는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고도의 마음 수행입니다.

분별된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인과에 의한 업보(業報)와 과보(果報)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감정의 기복(起復)이 생기지 않으므로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편안하고 자유자재한 상태가 됩니다.

다만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의 모양과 세상의 모습은 바로 두 가지 마음이 서로 교차하여 나타나는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것이 생기면 다른 저것도 반드시 생겨난다는 인과의 모습을 깊이 깨닫고 믿어 모든 일과 사안에 더 이상 미련을 두거나 집착하지 않는 마음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의 모습을 여실히 알아 깊은 신심을 가지게 된다면 더 이상 탐하거나 성내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뼛속까지 배어 있는 습기(習氣) 때문에 업의 모습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선은 바로 마음의 모습이나 세상의 모습에 대해 더 이상 시시비비(是是非非)의 의심을 하지 않고, 충만된 신심(信心)을 바탕으로 행동과 말과 생각에 있어서 분별된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몸에 밴 습기[삼업·三業-행동·말·생각]를 빼기 위한 피나는 수행입니다.

더 이상 삼독심(三毒心)에 집착하지 않고 삼업을 청정(淸淨)히 하면 육근(六根-눈·귀·코·혀·몸·생각) 또한 청정하게 되며 나아가 매사에 선(禪)을 행함으로써 늘 안녕(安寧)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육바라밀(六波羅蜜-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참고, 노력하고, 분별하지 않고, 지혜를 갖춤)과 염불, 기도, 정진이 곧 참선(參禪)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2025 제10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

일시 2025. 9. 27. 토
장소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주최: (재)한마음선원
주관: 한마음과학원

10:00~10:20 개회식 — 사회: 심성학 기술보증기금 본부장

세션 1 — 좌장: 박근영 한마음과학원 회원

10:30~11:30 인공지능 시대의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성: 불교적 관점
발표: 박진영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 미국 / 토론: 청동스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수료

11:45~12:45 白雲和尙語錄에 실린 편지의 분석을 통해 본 白雲和尙(1298-1374)의 생애와 사상
발표: 야닉 브뤼느통 파리 시테 대학교 교수, 프랑스 / 토론: 혜유스님 한마음아카데미, 독일

세션 2 — 좌장: 김종훈 김종훈치과 원장

14:00~15:00 한마음(오직 心)의 힘과 의본론(意本论): 금강경에 대한 비교철학적 해석
발표: 원하이밍 인민대학교 교수, 중국 / 토론: 김재영 산동대학교 치루 연구 레지던시 프로그램 방문학자, 중국

15:00~15:50 오공(五共) 사상을 기반으로 한 심상유도명상 프로그램 체험 연구: 생성형 AI 이미지 활용 중심으로
발표: 김준형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 토론: 이준엽 약산애 한방병원 원장

16:00~16:30 앎의 환상으로부터의 해탈 - 대행선과 족첸의 관점에서
발표: 오영국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 토론: 양영순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선임연구원

16:30~17:00 수행으로서의 축제: 대행선사의 가르침에 입각한 한마음선원의 연등회 준비
발표: 박진영 동국대학교 선학과 박사과정 / 토론: 박소진 신한대학교 교수

17:10~18:00 종합토론 — 좌장: 이화행 동명대학교 교수

18:00~18:20 폐회식

YouTube 한마음선원 공식채널 생중계

자료집 다운로드: 자료집은 한마음과학원 사이트 (https://hansi.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⑰ 좋은 벗[善友] : 정호승의 '벗에게 부탁함'

▶한줄 요약
벗에게 욕하고 싶을 때 이 시처럼 의식적으로 아름다운 대상을 빗대어 표현한다면, 적어도 관계를 해치는 일은 피할 것이다.



저 꽃 같은 놈

요즘 청소년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욕설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언젠가 EBS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에게 욕하지 않고 대화해 보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다. 대부분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자꾸 끊겼으며, 욕 없이 말하는 것을 모두 힘들어했다. 자신도 모르게 욕이 불쑥 튀어나오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 실험을 통해 학생들은 평소 자신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욕이 난무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청소년들 사이에 욕설이 일상화된 것은 어른들에게 보고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영화나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반말과 욕설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특히 요즘 대세로 자리 잡은 유튜브에서는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다 보니, 반말은 물론이고 욕설도 거리낌 없이 한다.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 또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반말과 욕설이 난무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줄어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청소년의 욕설이 심각한 것 같아 고등학교에 인문학 특강을 나가면, EBS에서 방영된 '욕의 반격'이라는 영상을 보여 주곤 한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충격적인 장면이 나온다. 평소에 말할 때는 무색의 침전물이 나오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분홍색, 화를 내면서 욕할 때는 갈색의 침전물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갈색의 침전물을 모아 쥐에게 주사했더니 곧바로 죽고 말았다. 욕설이 얼마나 해로운지 보여 주는 실험이었다. 제목대로 욕이 반격을 가한 것이다.

그래서 준비한 시가 정호승 시인의 '벗에게 부탁함'이다. 친구에게 욕하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시인은 거칠고 험한 말 대신 '봄비 같은 놈'이나 혹은 '꽃 같은 놈', '나무 같은 놈'이라고 욕하라고 한다. 욕도 이렇게 하면 상대 또한 기분이 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욕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 같은 느낌도 난다. 도대체 친구가 어떤 존재이기에 시인은 욕도 이처럼 예쁘게 하라는 것일까?

정호승은 '슬픔의 시인'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작가다. 그만큼 슬픔에 관한 시를 많이 썼다는 뜻이다. 1979년 발간한 첫 시집의 제목도 〈슬픔이 기쁨에게〉이다. 하지만 시인은 슬픔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는 지혜도 우리에게 전해 준다. 개인적으로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좋아하는데, 이를 통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시인이 룸비니 동산에서 사 온 흙으로 만든 불상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던 모양이다. 그때 순간접착제로 떨어진 조각을 붙이려 하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시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면 /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 산산조각이 나면 /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몇 해 전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전체를 뽑는 대공사를 할 때 우연히 이 시를 접했다. 시를 읽고 치아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니 묘하게 위로가 됐다. 임플란트와 브리지를 해서 살아가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주위에서 누군가 힘들어하면 이 시를 보내 준다. 대부분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삶이 산산조각 나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산산조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시인은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첨성대'라는 시가 당선돼 등단하게 된다. 1982년에는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위령제'라는 단편소설이 당선됐다. 소설 쓰는 시인인 셈이다. 그의 시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영향력 있는 작가다. 김광석이 불러 유명해진 '부치지 않은 편지'와 안치환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도 정호승의 시에 곡을 붙여 만든 것이다.

친구를 주제로 쓴 '벗에게 부탁함'은 1997년 발간된 시집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에 실린 시다. 정호승 시선집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도 실려 있다. 직접 들어 보기로 하자.

정호승, 슬픔 벗어나는 지혜 전해 줘
벗이란 마음의 소리를 알아듣는 관계
거친 말 대신 아름다운 대상 비유하길

"벗이여 / 이제 나를 욕하더라도 / 올 봄에는 / 저 새 같은 놈 / 저 나무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해다오 / 봄비가 내리고 / 먼 산에 진달래가 만발하면 / 벗이여 / 이제 나를 욕하더라도 / 저 꽃 같은 놈 / 저 봄비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해다오 / 나는 때때로 잎보다 먼저 피어나는 / 꽃 같은 놈이 되고 싶다"

좋은 벗[善友]에게 부탁함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오래 만나다 보면, 서운하다고 느끼거나 욕하고 싶을 때가 있다.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는가. 벗에게 욕하고 싶을 때 이 시를 활용하면 적어도 감정이 상해 관계를 해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나무나 꽃 같은 놈이라고 욕하는 친구에게 화를 낼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옛날부터 벗의 중요성을 강조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붕우유신(朋友有信)'이란 말도 숱하게 들어 왔다. 친구라는 제목의 시나 노래 또한 많은 편이다. 친구를 가리키는 '지음(知音)'이라는 말도 종자기(鍾子期)가 죽자 백아(伯牙)가 거문고의 줄을 끊어 버렸다는 그 유명한 '백아절현(伯牙絶絃)'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던가. 벗이란 이처럼 마음의 소리[音]를 알아듣는[知] 관계였다.

17세기 프랑스 작가인 라 로슈푸코(La Rochefoucauld, 1613~1680)는 친구를 가리켜 '제2의 나'라고 하였다.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는 친구를 믿지 않는 것은 친구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곧 나 자신을 믿지 않는 일이니까 말이다. 친구란 어떤 존재인가 보여 주는 것 같아 벗과 사이가 서먹해질 때면 들여다보곤 한다.

불교에서도 친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한다. 벗이란 단순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걷는 길동무다. 이런 의미를 담아 도반(道伴)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언젠가 아난 존자가 진리의 길을 가는 데 벗이 도(道)의 절반은 되는 것 같다고 말하자, 부처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답한다.

"아난아, 벗은 도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니라."

불교에 입문해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참 멋지다고 생각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승가는 '좋은 벗들[善友]'의 모임이다. 전국에 있는 사찰과 수련원, 포교당, 불교대학은 이처럼 좋은 벗들이 모여 공부하고 수행하는 도량이다. 개인적으로 선우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 불교대학 어느 기수의 이름으로 지어 준 적도 있다. 이처럼 손에 손잡고 어깨동무하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다.

하지만 함께 가는 길이 어찌 좋을 수만 있겠는가. 길벗이라 해도 때로는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럴 때 쉽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교의 십악(十惡) 가운데 하나인 악구(惡口), 즉 험한 말이다. 평소 감정에 휩쓸려 거친 말이나 욕을 많이 하면 습관으로 굳어져 고치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쌓인 나쁜 습관은 언제 어디에서 불쑥 튀어나올지 모를 위험한 폭탄과도 같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진짜 욕의 반격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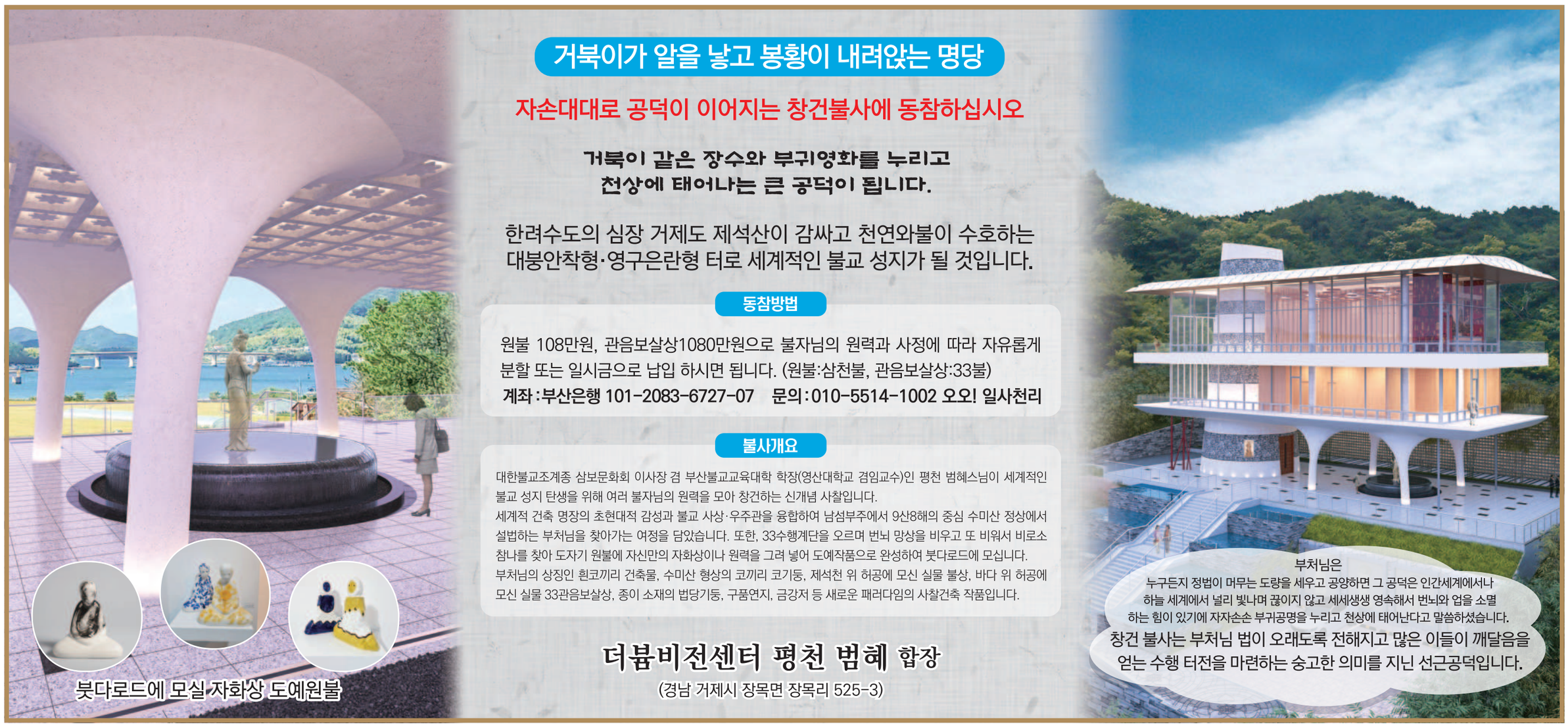
언젠가 학술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이다. 평소 욕을 많이 하던 교수가 사회를 보게 됐는데, 자기 뜻대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던 모양이다. 사회가 매끄럽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 교수는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평소처럼 혼잣말로 욕을 했는데, 그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생생하게 전달됐다. 그 순간 사회자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고 말았다. 요즘 말로 '웃픈', 즉 웃기면서도 슬픈 상황이 찾아온 것이다.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욕이 크게 반격한 셈이 되었다.

이처럼 욕이 습관이 되면 웬만해서는 고치기 힘들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친 말 대신 고운 말을 쓰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정호승의 '벗에게 부탁함'이라는 시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기도 하다. 누구라도 욕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 대상이 친구라면 더욱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만큼 욕을 하기도 받아 주기도 편한 관계여서 그렇다. 욕이 나오려고 할 때 그런 나 자신을 직시하고 의식적으로 아름다운 대상을 비유해서 욕하면 좋지 않을까. 시에서처럼 꽃이나 나무 같은 놈이 아니어도 된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 때면 '저 단풍 같은 놈', 겨울 눈이 내린다면 '흰 눈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해보자.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불교에서 널리 알려진 문수보살 게송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과 표정으로 상대를 기분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할 수 있다. 상대가 인생이라는 길을 함께 가는 벗이라면 얼굴에 찡그림이 아니라 웃음 띤 표정을 짓는 것이 좋다. 혹여, 욕하고 싶을 때면 좋은 벗에게 부탁해 보자. '이 문수 같은 놈'이라 욕해 달라고. 나도 때로는 입가에 미묘한 향과 미소 가득한 문수 같은 보살이 되고 싶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47호 | 15 | 전면광고

분에 넘치는 큰 이익을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고 하셨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보왕삼매론》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포교원 건물 급매
- 대지 : 200평
- 4층 포교원, 5개층, 산 및 근린
- 생활시설, 현6000/700만 수익
- 시세 70억 매가 45억, 주차가 매수완료시 수익1000~1300만 가능
- 위치 : 충남사찰 봉안당
- 면적 : 2000평, 사찰
- 법당 : 30평, 봉안 20000분
- 현재운영 중, 버스 진입 가
- 매가 : 25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금산면 약수암
- 대지 : 1,000평 (주차장, 호남고속도로 3k, 도로포장됨)
- 건물 : 법당 1동, 요사채 2동
- 임야 : 6정보(18,000평). (1500평 전답으로 사용, 소나무 20년생 40,000주, 교육연수원·수목장·납골당 개발가능, 마을인접지역은 전원주택 개발가능)
- 가액 : 5억원

010-3758-8039 / 010-5211-9958

포교당 안내

전월세입자 구함

-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60 4층
- 면적 : 4층 45평, 총 90평 전체 사용 가능
- 대웅전 약 30평, 공양간, 종무소
- 요사채 별도 존재,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전세금 및 집기 일체 5000만원(절충)

010-4179-6212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130평
- 법당, 소불당 삼성각 용왕당
- 사시사철 자연수, 상수도
- 전망 아주좋음
- 매매 또는 전월세 가능

010-5033-14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완도
- 평수 : 1860평
- 법당 : 25평 산신각 : 8평
- 요사채 : 45평, 28평
- ※태양광, 저온창고, 화장실 3개
- 가액 : 5억(절충 가능)

010-5635-949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시내서 사천시 경계
- 대지 총 133평(텃밭 20평 포함)
- 건물 법당 30평(인법당 및 스님 주거공간 포함)
- 공양채 20평(태양광 3K 설치 완료)
- 법당시설 완벽함(최상급 인법당 시설)
- 법사님 비구니 스님 추천(토굴로 적합)
- 매매가 3억 6500만원 (은행 융자 1억 5500만원 포함)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5003-4678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67번지 4층
- 약 30평, 방2, 법당1, 화장실1
- 보증금 500/월세 4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인연닿아 포교당 운영하실 스님 찾습니다

010-4641-54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7억 4000만원

010-3868-8219

사 찰 안 내

- 평수 600평(법당 60평. 요사채 7방)
- 커피숍 운영 공간 있음
- 금액 : 상담 후 결정

제주도 한라산 아래 위치한 사찰에서 한달기도도량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사찰입니다.

064-752-0108
010-2300-1955

사 찰 안 내

- 위 치 : 전남 해남읍
- 평 수 : 530평
- 법 당 : 13평 목조
- 요사채 : 70평
- 가 액 : 2억 2천

010-9940-00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검전위길 37-25
- 대웅전 20평 삼존불 신중탱화
- 주차 10대 가능 주차장
- 요사채 방1 부엌 화장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살림 집기 일체
- 보증금 500만원/월세 20만원

010-9017-48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원 (절충가능)

010-5436-5801

별 장 토 굴

- 위치 : 경북 봉화 소천면 분천리 비룡산 700고지
- 임야 : 2631평/대지 : 55평 (전체토지 준보전산지)
- 작은계곡 접함
- 컨테이너 1동포함
- 금액 : 5천만원

010-4124-778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모라동

백양산 천연굴법당

- 요사채 법당 15평 별도 존재
- 몽땅 7000만원 (조절 불가)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현저 스님 기도 중(신도 다수)

010-9010-5400

사 찰 안 내

- 장소 : 경북 포항
- 대지 : 1500평
- 건평 : 100평(법당, 공양간, 스님방, 종무소, 삼존불)
- 6년차 신축건축물
- 매매금액 : 12억원

010-2857-2811

암 자 안 내

- 위치 : 봉화군 봉화읍
- 건평 : 38평(지상권)
- 법당1, 화장실 및 샤워실1,주방 및 거실1, 사무실방1, 주지방1, 뒷쪽별채1 텃밭도 있읍니다

*조립식건물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현재물품 그대로 인계합니다)

- 가액 : 4,300만원

010-5538-5570

사 찰 안 내

- 위 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 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 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황토방 2동
- 해우소 : 1동. 차량진입, 주차장
- 금 액 : 5억

산이 병풍처럼 쌓인 도량, 남향이라 따뜻하고 앞이 탁트이고 살기좋은 도량, 큰비가 와도 물 배수잘됨. 도량에 과일나무 자두, 호두, 은행, 오디, 감나무, 매실, 두릅, 머위, 고사리 등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2층. 청암영봉 부처화실
- 임법당 필요한분 무상임대
- 1층 토굴 사용할 분 무상임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미타 불

010-3736-0693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서울 포교당

- 서울 은평구 3층건물 3층 (지하철역에서 300m이내 대로변 위치)
- 임대평수 24평
- 보증금 1000/월세 80만원
- 시설 인수 2000만원 필요, 냉난방 완료
- 인수 후 바로 사찰 운영 가능

010-3776-3795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존경받고, 불사에 큰 마음가지시는 스님께 도량을 올립니다.
- 경상도 내 유명사찰이고, 신도님 약 30만명 (종단본부도량)
- 신라경순왕 시대창건(추정), 현재 불사 약1000억원 시행완료.
- 문화재 2점보유 전통사찰 곧 등재 됨, 대웅전 등 건물12동
- 총무 · 재무 보살님과 직원은 스님이 임명가능 하십니다.
- 추가 불사비용 일부 준비되는 스님만 상담드립니다.(신도회)

053-745-9999, 010-2512-7777

포교당 안내

- 위치 : 안양시 만안구청 6동사무소 옆 명학시장 2층
- 총 60평 규모
- 법당, 침실 겸 서재, 주방, 창고
- 보증금 1000만원/100만원

010-5495-46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3억 2천만원

010-5316-56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 230평/건물 : 연면적 150㎡
- 대웅전(목조) 산신각(목조신축) 주지스님 처소(신축)
- 요사채 및 종무소
- 진주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6억원

010-3808-3852

들기름을 이용한 단청보호 및 색채 복원제

들기름 전통 도료

특허출원번호 10-2023-0181680

國寶 蘇子油

소자유

단청보호, 색채 복원제

발수코팅 · 오염방지 기능

천연의 식물성 들기름 원료를 이용하여
우리의 전통과 과학으로 특화된 기술의
결합체인 들기름 전통 도료입니다.

항균시험 99.999%, 중금속 불검출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제주목 관아(문화재) 시공사례

동화특수산업(주)
국보도료연구소

문의 I 010-3747-2111
TEL I 031-451-6232 FAX I 031-451-6238
주소 I 경기도 군포시고산로 166, SKI 벤티움 102동 1201호
E-mail I woodgim@hanmail.net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47호 | 16 | 전면광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면 무슨 일이든 마침내는 이루어진다. 저 시냇물이 흘러 흘러 마침내 바다에 이르듯이.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 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치 : 장호원 감곡시내
- 대지 : 800평
- 대웅전, 연못, 휴게소, 찜질방, 종각 산신각, 신비한 거북바위, 요사채 방7개, 리라이트찜질 가온기5대
- 가액 : 9억 / 전세 : 3억 5천 하실분 전화주세요 문자 먼저 주세요

010-5883-22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 산 3900평 대지258평
- 건물3동(대웅전, 요사채, 공양간)
- 주차 가능, 경주시 15분 거리
- 가액 : 3억 5000만원 (집기일체, 절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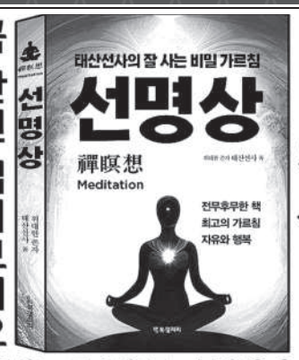
010-4554-5984

(사찰행사)범음범패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생전예수재

연암당 덕평스님
010-6219-4757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49재 천도재 초하루 기도

부산 경남지역
법주사 수현 스님

010-6667-4843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 즉시 영가 천도
종교인 상담불가,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사무장 구함 010-4804-2309

염불교육원 수강생 모집 공고

불교 전통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불교에 뜻을 둔 일반 불자 그리고 재가 · 출가 수행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개설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교육 과정
▶의식반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5시
천도재, 49재, 영산재 등 실전 중심 의식 실습
범패 소리의 조화와 사물 활용법 실습
▶경전반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5시
주요 경전 해설(반야심경)

▣ 교육 기간
▶제1학기 : 2025년 9월 22일 ~
▶제2학기 : 2026년 3월 중

▣ 교육 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93)

접수 기간 | 2025년 8월 11일(월) ~ 문 의 | 055)298-3634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돌공사 전문 (石)

공/사/개/요
석 · 굴법당
축대 및 보수공사(石)
까다로운 돌길 공사
석 · 식자재보관실 · 저장실

전화 042-624-4038
042-624-4039
H P 010-5123-4038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42-22, 103호
동진건설 천성건설 합병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전국 어디든 사찰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구해드립니다

국제결혼 인연맺어드립니다

010-9260-1672

수연스님의 AI 명품운명 컨텀

지혜와 과학이 만나는 운명의 길
전통 명리학과 최첨단 AI문서가 하나되어 수연 스님의 깊은 통찰로 사주 · 궁합 · 사업 · 시험 · 운세를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성공을 설계하고 미래 성공을 설계하고 미래를 디자인하는 맞춤 상담

예약전화 010-2239-0300
SUYEON SUNIM'S
AI PRESTIGE FATE QUANUTUM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⑱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현실서 만나고 싶은 '의왕'
〈醫王〉

'의학(메디컬) 드라마'라고 장르를 구분할 정도로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많다. 의학 드라마는 수술 장면과 같은 의료행위를 보여 주기도 하고 등장인물들의 갈등에 집중하기도 하며, 병원 시스템과 사회 문제를 다루기도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그중 한국에서 본격적인 의학 드라마로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종합병원(1994)'이 아닐까 싶다. 꼬박 2년 동안 92부나 방영됐던 이 드라마는 탄탄한 사전 취재를 바탕으로 병원의 세계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전문직 드라마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뒤로도 '하얀 거탑(2007)', '뉴하트(2007)', '골든타임(2012)', '굿닥터(2013)', '낭만닥터 김사부(2016)', '중증외상센터(2025)' 등 제목만 들어도 명장면들이 떠오르는 의학 드라마들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의학 드라마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많은 의학 드라마가 의사와 간호사, 또는 의사끼리의 로맨스로 진행되면서 이름만 의학 드라마이지 결국은 '병원에서 연애하는 이야기'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올 만큼 진중하게 의학 드라마 본연의 역할을 한 경우도 있지만, 꽤 많은 드라마가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독특하다. 드라마는 율제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99학번 동기 다섯 명의 이야기이다. 간담췌외과 이익준(배우 조정석), 소아외과 안정원(배우 유연석), 흉부외과 김준완(배우 정경호), 산부인과 양석형(배우 김대명), 그리고 신경외과 채송화(배우 전미도).

진료과가 다섯이나 되는데도 이 드라마에서는 수술을 둘러싸고 다른 진료과와 갈등을 빚으며 표출되는 의사들 사이의 알력 다툼이나 병원 운영진과의 갈등, 마찰 등은 볼 수 없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보는 20년 지기 동기 의사들의 일상이 있을 뿐이다.

물론 이 드라마에도 의사들의 로맨스는 있다. 하지만 그런 외적 요소가 의학 드라마 본연의 모습을 해치지는 않는다. 이들의 의사로서 면모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제작진은 진료과별로 자문 의사를 두었고, 심지어 수술 장면에는 현직 간호사를 직접 출연시키기도 했다. 이런 세세한 준비 덕분에 현직 의사들마저 이 드라마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한다.

드라마의 시선에서 본 병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로병사가 모여 수만 가지 이야기가 녹아 있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탄생의 기쁨과 영원한 헤어짐이 공존하고, 내 옆의 환자가 나와 같은 병을 가진 것만으로 큰 힘을 얻다가도 누군가의 불행이 내 것이 아님에 안도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제작진은 "작품의 배경이 병원이고 주인공의 직업이 의사일 뿐 '메디컬 드라마'로 불리기엔 거창한 것 같다"며 "메디컬이라 쓰고 라이프라 읽는 우리네 평범한 삶의 이야기"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병원 "생로병사 모인 인생의 축소판"
부처님, 방편 · 지혜로 번뇌 제거해
공감 바탕한 자비로 상대 아픔 위로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의사에 비유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번뇌로 아파하는 중생들을 치유하는 약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처님은 온갖 방편과 지혜로써 중생들의 번뇌를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의왕(醫王)'이라고도 불린다.

훌륭한 의사라면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의왕이신 부처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무수한 방편을 흔히 '병에 알맞게 약을 준다[應病與藥]'고 표현한다. 머리가 아픈 사람에게는 머리가 낫는 약을, 허리가 아픈 사람에게는 허리가 낫는 약을 준다는 뜻이다. 또한, 똑같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도 머리를 부딪쳐서 아픈 경우도 있고 열이 있어서 아픈 경우도 있다. 열이 나서 머리가 아픈 사람에게 타박상 치료제를 주거나 머리를 부딪친 사람에게 해열제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 바른 처방에는 바른 통찰이 필요하다. 부처님의 방편에 반드시 지혜가 함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병에 알맞게 약을 준다'는 말은 준비된 100개의 약 중에서 고작 한 가지 약만으로 그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곳이 아프면 그 아픈 곳에 온 신경이 집중되기 마련이어서 실제로 느끼기에는 온몸이 아프다. 내 발에 찔린 가시가 암 환자의 고통보다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통증의 속성이다.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고통은 그저 고통일 뿐 크고 작은 고통이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한 군데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을 얻는다는 것은 아픈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통째로 해결하는 일이다.

부처님께서 주시는 약은 중생의 아픔을 전체적으로 통찰하여 근본적으로 치유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방편은 그냥 방편이라고 하지 않고 오묘하고 오묘한 '선교방편(善巧方便)'이라고 한다.

의왕이신 부처님의 본질은 '자비'이다.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고통에 버거워하는 중생에게 자비의 손길을 건네주는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자부(慈父)'라고도 한다. 자비의 기본은 공감이다.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며 동조와 위로를 전해 주는 것이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기획의도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언제부턴가 따스함이 눈물겨워진 시대.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작지만 따뜻하고, 가볍지만 마음 한편을 묵직하게 채워 줄 감동이 아닌 공감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결국은 사람 사는 그 이야기 말이다."

기획 의도대로 드라마에 등장하는 동기 의사들은 정확한 처방과 뛰어난 의학지식으로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감과 위로를 전하며 그들을 어루만져 준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의 상태에 따라 울고 웃는 안정원이나, 남편이 밉다고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자신의 이혼담을 전하는 이익준이 그렇다. 그러니 실제 의사들이 감탄할 만큼 의사들의 면모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현실적인 드라마이면서도, 현실의 병원에서는 만나기 힘든 의사들을 보여 주는 동화 같은 드라마이다. 마치 이 시대에 의왕 부처님이 출현하신 듯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5인방. 이런 의사들을 현실에서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승단 화합 이끄는 규정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㉟ 열 가지 비법(十非法)

몇 주 전부터 우리는 '의지함이 없는 행(무의행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처님께서 제1·제2의 십종 무의행법과 출가공덕으로 인한 십종의 출가공덕, 5무간지옥과 4종 근 오간대죄 및 악업의 근본지죄, 4종의 근본 무간 죄의 분별과 3종 무의행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우리 인간의 죄상에 대한 철저한 참회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죄상의 종류를 분석하고 엄중하게 훈계하셨음에도 인간의 죄근은 그렇게 간단하게 뿌리 뽑히는 것이 아닌지라, 함께 수행하는 집단에서도 그러한 파계의 비구를 가려내어 쫓아내는 '빈출법'을 거론하시며 열 가지 비법(非法)을 말씀하십니다. 쫓아내는 법에서도 정중하고 예의와 격식을 갖추라고 하며, 특히 파계 비구라 할지라도 함부로 꾸짖으면 큰 죄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당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파리야, 상좌 비구로서 삼장(三藏)을 지닌 사람은 스님네를 화합시키고 사자(使者)를 국왕과 대신에게 보내 알리며 그 위력의 도움을 받은 후에 여실히 법에 의하여 다스려야 하느니라."

우파리는 다시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 악행 비구가 재보와 지식과 변재 내지 갖가지 교묘한 방편의 힘으로 국왕, 대신을 기쁘게 하여 계율을 파한 비법의 무리 편에 들어서, 악행 비구의 죄를 용서하여 법에 의하여 다스림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그들을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파리야, 만일 그 비구가 바른 법에 의지하지 않았을 때 무거운 죄상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면, 스님네는 우선은 그대로 두지만 대중 가운데 이미 드러났다면 화합하여 불법 밖으로 그를 물리쳐야 하느니라. 우파리야, 귀리가 보리밭에 나서 그 싹과 줄기와 가지와 잎이 보리와 섞여 있어 아직 귀리의 이삭이 나오지 않았을 때 농부는 그대로 내버려두지만, 그 이삭이 나왔을 때는 귀리가 보리를 못 쓰게 될까 두려워 뿌리째 뽑아 밖으로 던지는 것과 같다. 무의행을 파계한 비구도 그와 같아 청정한 스님네에 섞이고 선신(善神)들이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대로 두지만, 선신이 이미 발견하여 무거운 죄상이 발견돼 대중 가운데 드러났을 때는 스님네는 화합하여 법에 의하여 그를 물리쳐 불법에서 쫓아내야 하느니라. 우파리야, 비유하면 저 큰 바다가 송장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는 것처럼 나의 성문승인 제자들도 똑같아 파계한 악행 비구의 송장과는 함께 살지 않느니라."

그때 다시 우파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파계한 악행 비구를 스님네가 화합해 몰아낸 후 그 악행 비구가 재보나 지식, 변재, 혹은 갖가지 교묘한 방편의 힘으로 국왕과 대신을 기쁘게 해 그들이 모두 파계한 비법의 무리 편에 들게 하고 함께 살면서 그 위세의 힘으로 스님네를 핍박하고 다시 그 악행 비구를 스님네와 함께 살게 한다면, 그때 스님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파리야, 그때에는 그 스님네 가운데서 뉘우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계율을 지키는 비구는 그 계율을 호지(護持)하기 위해, 그 악행 비구에 대하여 성을 내어 꾸짖어서는 안 된다. 다만 국왕이나 대신에게 알려야겠지만, 혹 도리어 그 핍박을 받을까 두려워 알릴 수 없게 되면 거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느니라."

이렇게 같이 정진하는 비구 중에 악행 비구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지 않고 자신의 세력과 국왕 등의 힘과 합심하여 대중을 번뇌스럽게 할 때는 그곳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여, '묵빈대처(默賓對處)'로 상대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승니(僧尼)의 범계(犯戒) 등에 관한 쟁의를 재판하는 '칠멸쟁법'의 제정은 불교 교단에 있어서도 승단의 화합을 이끄는 적합한 규정으로 일곱 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①현전비니=면전지쟁율(面前止諍律): 직접 범인에 대하여 죄상 등을 신문, 청취해 죄를 단죄.

②억념비니=억지쟁율(憶止諍律): 죄과를 쟁론 시, 범인의 기억 유무를 증명하게 해 단죄.

③불치비니=불치지쟁율(不痴止諍律): 정신 이상 시, 병의 쾌차 후 갈마를 주어 뉘우치게 함.

④자언(自言)비니=자발로지쟁율(自發露止諍律): 죄를 자백시키게 해 쟁론을 종식시킴.

⑤본언치비니=거지쟁율(居止諍律): 범인 진술이 모순될 때, 주(籌)를 행하여 다수결로 결정함.

⑥다멱(多覓)비니=전전지쟁율(展轉止諍律): 쟁론 미결정 시, 유덕승(有德僧)의 수로 결정함.

⑦초부지비니=여기분소지쟁율(如棄糞掃止諍律): 양편 비구가 쟁론 시, 투쟁자의 서로가 참회함.

이 같은 내용은 사분승계본(四分僧戒本)에서 "제대덕(諸大德)이여, 이 칠멸쟁법은 반월반월계경(半月半月戒經) 중에 설했다"라고 하여 보름, 보름마다 설하여졌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송림사 주지〉

법당서 간단 견본과

기존 법당 시설과 스님 자신이 양손 마이크로 성능 비교 테스트시
놀라운 성능 차이를 확인 후 모든 시설상담 소리비교 비용 한잔!

최신디지털앰프 : 다루기 1초 / 고장없음 / 현 귀 법당 기존시설가의 1/3 가격차 확인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본사는 설악 신흥사와 남해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별도 : 야외방생용 판매)
충전식 / 출력 3kw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40평 가능
야외사용 겸용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 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⑱ 복장이 되살려 낸 잊힌 왕후

▶한줄 요약
장렬 왕후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불상을 조성해 도성 안팎의 사찰에 하사하는 등의 불사를 통해 개인적 소망과 국가의 평안을 함께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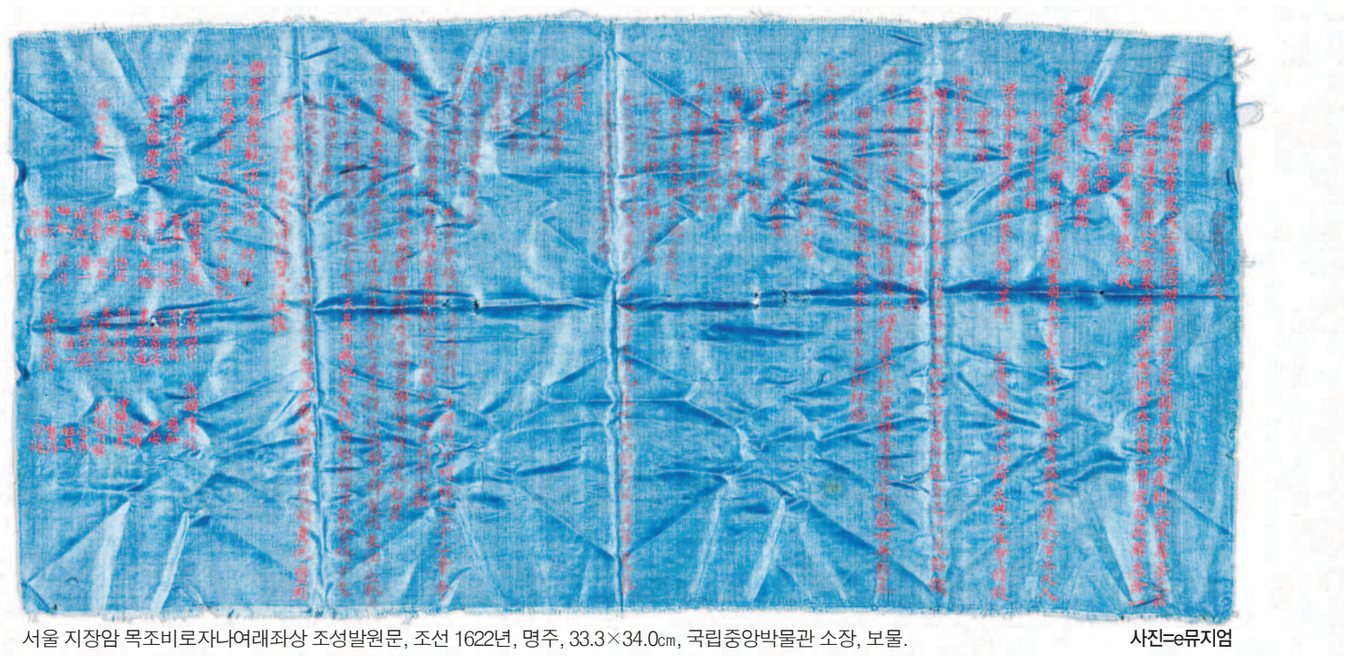


장렬 왕후, 도성 안 비구니절 불사 이끌어

1622년(광해 14), 임진왜란의 병화가 휩쓸고 간 조선의 수도 한양 도성에서는 재건 공사가 한창이었다. 그해 봄, 한양 도성 안의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 역시 큰 불사(佛事)의 회향을 앞두고 분주했다. 무려 불상 11존과 불화 7점을 전국에서 모여든 승려 장인들이 동시에 조성해 봉안하는 장대한 규모의 불사였다. 그러나 도성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이 대불사는 당대의 문헌에는 전혀 기록돼 있지 않다. 역사에서 잊힌 이 불사가 세상의 빛을 본 것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인 2007년의 일이다.

2007년 당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지장암(地藏庵) 대웅전에 봉안됐던 목조비로자나여래좌상의 복장(腹藏)이 조사됐고, 2010년에 개최된 학술대회와 보고서를 통해 그 결과가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당당한 불신과 위엄 있는 상호가 인상적인 목조비로자나불상 내부에는 조성발원문(造成發願文)을 비롯해 은제 후령통(喉鈴筒)과 다양한 불교 전적 및 다라니 등이 안치돼 있었다. 푸른 비단 위에 정연히 써 내려간 붉은 글씨는 이 불사의 발원자가 '장렬 전하(章烈殿下)'라고 밝혔다. 장렬 전하는 곧 광해군(光海君, 재위 1608~1623)의 정비인 '장렬경휘정성명숙현신정순왕비(章烈敬徽貞聖明淑顯愼貞順王妃)'를 가리키는 존호이다. 역사가 폐비 류씨(廢妃 柳氏, 1575~1623)라고 기억하는 이 잊힌 왕비는 대불사를 일으키며 무엇을 빌었던 것일까.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여래좌상 조성발원문, 조선 1622년, 명주, 33.3×34.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사진=e뮤지엄

지극한 불심으로 불사 일으킨 장렬 왕후

장렬 왕후 류씨의 본관은 문화(文化)이며, 판윤 류자신(柳自新)과 정양정(鄭楊貞)의 딸이다. 그녀는 1587년(선조 20)에 선조(宣祖)와 공빈 김씨(恭嬪金氏)의 둘째 아들인 광해군과 가례를 올리고 문성군부인(文城郡夫人)으로 봉해졌다. 1592년(선조 25)에는 전란의 와중에 광해군이 긴급히 세자로 책봉되자 세자빈으로 진봉됐다. 1608년(선조 41),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왕으로 즉위하자 왕비가 됐다.

1623년(광해 15) 3월에 능양군(후일의 인조)이 일으킨 반정이 성공하자, 광해군과 함께 폐출돼 강화도에 유배됐다. 폐위된 광해군의 지위가 '군(君)'으로 격하됨에 따라, 그녀 역시 왕비에서 '군부인(郡夫人)'으로 격하됐다. 같은 해 10월 폐위된 지 7개월여 만에 강화도에서 숨을 거두었다.

정사나 야사 모두 폐비에 대해서는 기록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효종의 부마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 1648~1723)이 1708년(숙종 34)에 편찬한 야사집인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에는 장렬 왕후에 관한 일화들이 다수 실려 있다. 장렬 왕후는 정재륜의 증조부인 정창연의 외손녀였기에, 정재륜은 한 집안사람이었던 그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사견문록〉에 의하면 장렬 왕후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왕비는 대궐 안에 금부처를 모셔 두고 친히 기도하며 복을 구했고, 평소 대궐에서 불상을 만들어 안팎의 절에 하사했다. 그녀는 후생에는 다시는 왕가의 지어미로 태어나지 않기를 항상 빌었다고도 전한다. 유사한 기록이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에도 게재돼 있다.

이능화의 기록에 보이는 '불상을 만들어 안팎의 사찰에 하사했다[造佛像 以內外寺刹]'는 구절은 장렬 왕후의 불사 경향에 대해 알려 주기에 중요하다. 여기에서 '안'은 자수사와 인수사를 비롯한 도성 안의 비구니절을 이르는 것이요, '밖'은 도성 밖에 멀리 위치한 명산대찰 일컫는 것이다. 돌아보면, 왕비 류씨는 1622년(광해 14) 한 해만 해도 5월에는 도성 안 자수사와 인수사를 위해 다수의 불상과 불화를 조성하는 대불사를 회향했고, 7월에는 도성 밖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남쪽에 있는 건물인 수다라장(脩多羅藏, 당시 대장전[大藏殿]이라 지칭)을 중수하는 불사를 마무리 지었다.

자수사와 인수사 두 절을 위해서는 단독으로 나섰고, 해인사 수다라장 중수에서는 '조성대시주(造成大施主)'이자 내명부의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후궁들, 옹주들, 상궁과 나인들, 상궁으로서 출가한 비구니[尚宮比丘尼]와 비구니 스님들을 이끌며 불사 후원을 주도했다. 비록 2년 후인 1624년(인조 2) 4월에 완공을 보긴 했으나, 장경판전 북쪽 건물인 법보전(法寶殿)의 중수도 수다라장과 함께 장렬 왕후와 궁중 여성들의 발원으로 시작됐을 것이다.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여래좌상, 조선 1622년, 높이 117.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사진=e뮤지엄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조선 1622년, 높이 117㎝, 서울 칠보사, 보물. 사진=국가유산청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조선 1622년, 높이 42㎝, 안동 선찰사, 보물. 사진=국가유산청

목조비로자나상의 조성발원문에 언급된 자수사와 인수사는 〈조선왕조실록〉에 종종 언급되는 자수원(慈壽院)과 인수원(仁壽院)을 가리킨다. 조성발원문 속의 명칭에서 불사가 거행되던 1622년 당시에는 두 절의 위상이 '원(院)'이 아니라 '사(寺)'로 불릴 만큼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격의 격상 뒤에는 장렬 왕후의 후원이 있었을 것이다.

두 절의 연원은 왕이 승하한 후 선왕의 후궁들과 연로한 궁중 여성들이 공동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한 별궁에 있다. 이러한 별궁이 그곳에 거주하는 궁중 여인들의 숭불 활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불교 시설화하면서 왕실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비구니원으로 거듭난 것이다. 자수원의 전신은 본래 태조의 일곱째 아들 무안 대군 이방번의 집인 자수궁(慈壽宮)이며, 인수원은 태종 이방원의 잠저인 인수궁(仁壽宮)이 그 모태이다. 전대 후궁들의 공동 거주지였던 두 비구니절은 자연히 궁궐의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자수궁은 경복궁(景福宮) 서쪽 외곽인 지금의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있었고, 인수궁은 창덕궁(昌德宮)의 서북쪽 담장 근처인 오늘날의 종로구 원서동 일대에 자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렬 왕후의 자수사·인수사 불사는 광해군대의 궁궐 영건과 연결해 바라볼 때 매우 흥미롭다. 조선시대 궁궐의 연혁 등을 기록한 〈궁궐지(宮闕志)〉 중 '경희궁지(慶熙宮志)'에는 1616년(광해 8)에 경덕궁(慶德宮, 경희궁으로 개칭), 인경궁(仁慶宮), 자수궁(慈壽宮)의 조영 공사를 시작했다고 전한다. 막대한 자원과 인력이 소요되는 궁궐 영건에는 승군(僧軍)이 동원됐다. 바꿔 말하자면, 당시 한양에는 많은 수의 승려 장인들이 머무르고 있었다. 광해군과 장렬 왕후가 거주했던 창덕궁과 인수사는 궁궐의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었고, 새 궁궐이 지어지던 자수궁의 옛터에 자수사가 있었다. 두 절의 비구니 스님들은 구중궁궐 속 왕비마마와 한양 도성에 모여든 비구 스님 사이를 내왕하며 불사를 매개했을 것이다.

푸른 비단에 붉은 글씨로 쓴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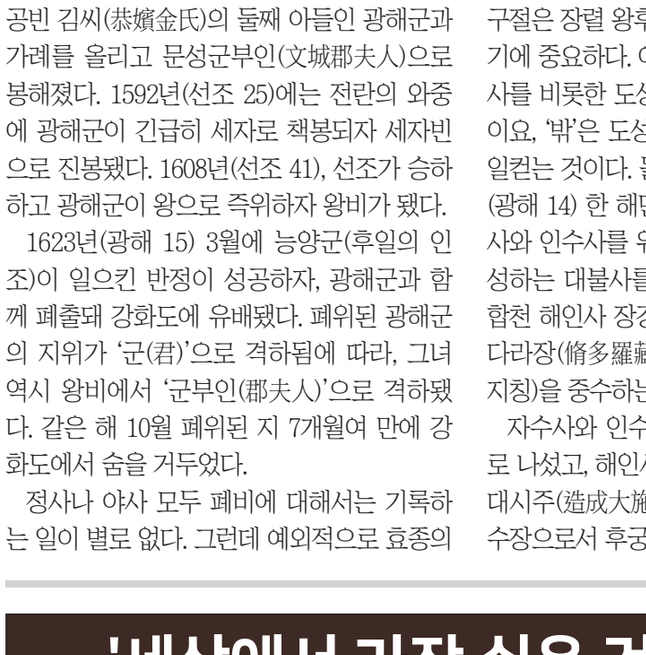
장렬 왕후가 발원했던 불상들은 1661년(효종 2)에 자수원과 인수원이 폐사된 이후 가까이는 근기(近畿,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지역), 멀리는 경상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인연 있는 사찰로 흩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간 지장암 목조비로자나여래좌상을 필두로 서울 칠보사(七寶寺)의 목조석가여래좌상과 안동 선찰사(仙刹寺)의 목조석가여래좌상이 자수사와 인수사에 봉안됐던 11존의 일부로 밝혀졌다. 아쉽게도 1622년에 함께 조성한 불화 7점의 소재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이 3존의 불상에서는 푸른 명주 위에 붉은 글씨로 적은 발원문이 각각 1점씩 발견됐다.

발원문을 통해 1622년 장렬 왕후의 불사에서 당대 최고의 고승 벽암 각성(碧巖覺性, 1575~1660)이 증명(證明)의 소임을 맡았고, 현진(玄眞), 수연(守衍), 응원(應元) 등 전국 각지에서 자신들의 유파(流派)를 이끌고 활약했던 승장(僧匠)들이 대거 참여해 공동으로 불상을 제작했음이 밝혀졌다. 왕후가 직접 발원하고 임진왜란과 뒤이은 병자호란 이후 전국 사찰의 재건 불사를 이끌었던 각성이 불사를 지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발원문에는 장렬 왕후의 개인적인, 동시에 국가적인 발원이 담겨 있다. 불사의 일차적인 동기는 임금과 본인의 아들인 세자와 세자빈 내외를 위해 복을 빌고, 먼저 세상을 뜬 직계 가족들의 명복을 함께 비는 데 있었다. 작고한 친정 부모, 자신이 낳은 자녀들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난 왕자 1명과 공주 2명, 그리고 세자빈 박씨 소생의 왕자, 세상을 떠난 친정 형제들이 극락에 왕생하길 빈 것이다. 나아가 장렬 왕후는 조선의 왕비이자 임진왜란을 몸소 겪었던 사람으로서 동쪽의 왜와 북쪽의 오랑캐에 의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어 국가가 안녕하기를 빌었다. 임진왜란의 와중에 갓 출산한 왕자를 잃는 고통을 겪었던 왕후의 진솔한 바람이었다.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한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1+1 소비자가 ~~₩99,000~~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8563-2356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머리로 굴리지 말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다 놓아라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부처님 법을 믿으러 다니기 때문에 여기 이 절에 왔다고 하실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한 생각, 한 행동, 한 발자국을 다 따져 본다면 하나도 진리에 관한 건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 번째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한도량인 것입니다. '한'이라면 전체를 말합니다. 예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전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고요. 이 세상에 죽은 세상 산 세상이 다 가설이 되어 있어서 그 의식 자체가 전부 근본에 가설이 돼 있고요. 그래서 모두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두어서 광력, 자력, 통신력, 전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말해서 이게 하늘을 받치고 땅을 딛고 그대로 이게 원을, 전체를 같이 굴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백지를 알아야 붓대를 굴릴 수 있고, 붓대를 굴릴 수 있어야만 이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한 발로 디뎠다고 하는 것은 평발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도량을 디딘 거죠. 전체를 받치고요. 전체를 굴리고요. 그래서 불바퀴는 그대로 영원한 걸 말하고, 물바퀴는 지혜를 말하고, 법바퀴는, 즉 말하자면 철퇴로 내리는 거, 즉 말하자면 대권(大權)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대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그렇게 허명무실한 게 아닙니다. 자비의 대권은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안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할 상황, 이런 것을 오늘은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생명들의 의식이 주어져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몸 바깥에도 자력으로써 밀어내는 게 있고 밀어 당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도 있고 어떤 혹성에도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나고 들고, 든번 난번 교차해 가면서 방어하는 게 있단 얘깁니다. 그걸 세 가지 요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몸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래서 밀고 당기고 밀어내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바로 든번 난번 이렇게 방어를 해서 지키는 게 있다 이겁니다. 지키는 건 뭐냐 하면, 레이더망에서 들이느냐 내느냐의 그 지키는 관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을 때, 이 레이더망에, 즉 누진통에 직결이 되는데 우리가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벨을 눌러서 온통 집안 식구들을 다 모으듯이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의식 자체가 전부 쏟아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안에서 나가는 거, 이걸 상황에 따라 대치를 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서로 순환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오로라'라고 이름 짓고 있다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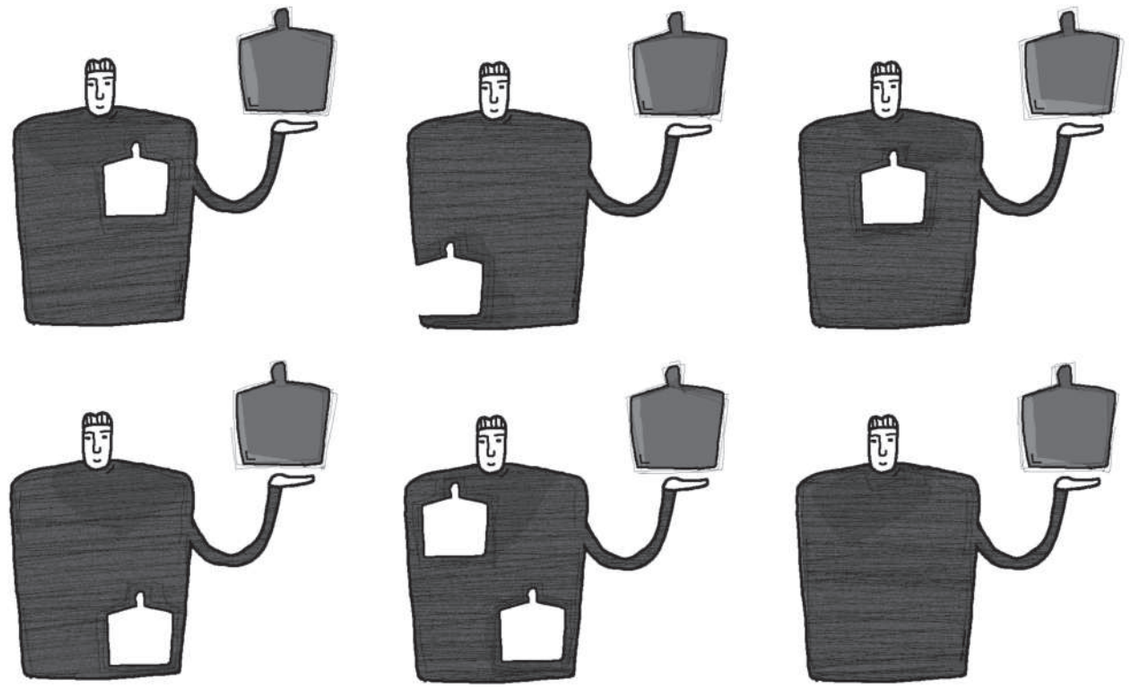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땐 모습 없는 의식 자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습 없는 의식 자체가 한생각에 만 개가 되느냐, 천 개가 되느냐? 하나가 되느냐, 하나도 없어지느냐? 이거는 바로 작용에 따라서 그렇게 생기고 일어나고 줄고 일어나고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바깥의 생명들은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바깥의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안에서 일어나서 나가고 바깥에서 일어나 들어오고 하는 그 과정이 있고, 안에서 일어 나가서 그냥 대치를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면서 남을 만나는데 상황에 따라서 싸움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좋게 화해도 할 수 있고, 돈을 받고 그냥 치우는 것도 있고, 서로 좋게 해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권은, 대권은 누가 가졌느냐? 여러분에 직결돼 있는 근본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의 믿는 마음에 따라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은 믿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행을 하는 거를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돼서 말을 하는지 어떻게 돼서 한 발 한 발 떼고 있는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말입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즉 말하자면 화두라고 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인공도 있는 것이요, 상대도 있는 것이요, 세상도 있는 것이요, 모두 이름들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발견하고 의식에서 벗어나면 되는 줄 알지만 의식에서 벗어나도 자기 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게 닥쳐오든지 그거는 상관을 하지 말아야죠. 자기 지혜를 넓혀 주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다가오는 자기 공부 재료를 막고 '나는 이런 거 싫다.'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하나하나 놓고 가면서 어떠한 거든지 용도에 따라서 그냥 놓고 가라. 그 근본에다 놓으면 다 된다. 더 위로 올라가서 내가 더 알려고 하지도 말고, 더 내려가서 모르지도 마라. 오직 거기 근본에 직결되어 있는 그 자체에만 놓는다면 그대로 한생각에서 가정의 12대 종손까지도 모두 건질 수도 있다.

한생각에서, 무슨 돈을 들여서 많이 차려 놓고 하는 것보다도 한생각에서 하는 게 제일 빠르다, 빠르다 이렇게 가르쳐도 여러분은 그렇게도 모르고 그저 남한테 기대고 말입니다, 응? 모두 여러 사람들이 연세를 잡숫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남한테다 의존하는 마음도 생깁니다만 의존하는 마음이 더욱더 없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의존하는 생각이 있다면 모든 게 비틀어지고 모든 게 속상하고 내가 해 달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고, 불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나대로 더 비참하게 되고 나는 나대로 더 힘이 줄어들고 병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생각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 거고, 병이 들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절대적으로 아주 죽을병이 들었을 때, 더욱더 그것은 자기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수만 번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난 경험을 스승 삼아서 오로지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날까지 내가 손을 이렇게 한데 모으고 나를 살려 달라고 애원한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내 양심입니다. 양심을 맹세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애원하고 여러 식구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믿는 마음,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

☞ 19면에서 계속

를 등에 업고서 걸음을 걷는데 무겁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 '여러분이 다 자기 자신의 자성을 알고, 의식에서 벗어나고 몸에서 벗어나고 진리 속에서, 끄달리지 않아야 여러분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고 세계를 거둘 수 있고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하면은 벌써 이거는 공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개별적인 여러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인공' 하면은 포괄적인 주인공이지 어째서 개별적인 주인공입니까? 하나 얘기할까요? 작게는 여러분의 속에 든 의식이 전부 한마음으로 합쳐진 모임의 장소 한생각일 것이고, 두 번째 죽은 세상 산 세상이나 천체 한마음의 근본이 한데 합쳐지는 포괄적인 주인공이죠. 첫째도 포괄적이요 둘째도 포괄적이요 셋째도 삼천대천세계가 한데 포괄적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데 돌아가는데 지금 마음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동시에 여러분이 '내가 물이 없다' 이랬을 때는 포괄적인 데서 개별적으로 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른 것을, 입을 축이려도 포괄적으로 돌아가야만이 목을 축일 수가 있으니 이것이 공덕이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경고한다고 한 거는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얼른 안 나서 그럽니다마는, 음, 여러분이 지금 주인공을 믿고 이렇게 찾고 그러는데, 찾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본래 있으니 발견하라' 이런 소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모순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은 주인공을 머리로 굴리려고 한다 이겁니다. 내가 이번에 철저히 여러분의 마음을 검증했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굴리는 경향이 즉 30% 20%는 되더라 이겁니다. 머리는 쉬게끔 내버려 두고 마음으로써 뜻을 가져라 이겁니다, 믿음의 뜻!

뜻으로 내고 들이고 하는 거지 머리로 굴린다면 머리가 고장이 나요. 머리로 굴리는 게 아니라 믿는 것도 마음이요 굴리는 것도 마음이요 들이고 내는 것도 마음이요, 응? 마음에다 하면은 절대로 고장이 나질 않어. 머리로 굴리니까 머리로 산발이 돼서 바깥으로 내닫고 머리가 도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 다 많은 거 아니냐 이거야, 딴짓들을 하고.

옛날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주인공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간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온다 요런 소릴 하는 거야. 그래 주인공이 나가란다고 나가고 들어오란다고 들어오느냐 이거야. 상황을 봐야지. 지켜보는 놈은 누구냐 이거야. 한 발 딛고 받치고 굴리는 놈은 누구냐 이거야, 굴리는 놈. 이것이 내가 해서 누가 될 일이냐, 누가 안 될 일이냐? 이것을 해서 내가 이익할 거냐, 이익지 않을 거냐? 이것을 해서 남이 보기 좋은 거냐 보기 나쁜 거냐? 왜? 이런 거를 지켜보는 여러분이 있건만 무조건 주인공이 하란다고 나가서, 바깥에 가서 춤을 추란다고 춤을 추시겠습니까? '저 바깥에 나가서 춤을 춰라.' 주인공에서 그런다고 하면은 '허허!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테스트해 보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좀 이렇게 다시 굴려서 되놓을 줄은 왜 모르느냐 이 소립니다. 그렇다면 여기 와서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노예가 돼서 그냥 살지. 이렇게 노예 짓을 하나 저렇게 노예 짓을 하나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머리로 굴리지 말라, 모든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다 놔라' 하는 거.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대로 하는 건 노예 생활로 접어드는 길이다. 여러분이 값싸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대한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내가 든든하더라도 한 번 더 딛고 한 번 더 흔들어보는 그런 조심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항상 믿는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나 깨나. 그렇다고 해서 자나 깨나 손을 한데 모으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몸짓 발짓 하는 거, 난 싫단 말이야. 왜? 귀신인가? 아주 진득하고 무겁고 이 세상을 다 들어서 놓는 것처럼 무겁게 한마음 뜻으로다 놓는다면, 이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의 마음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얘기한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머리로 굴리지 않는다. 모든 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마음에다 놓는다. 믿고 물러서지 않는다. 그건 개별적인 자기가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다. 근본이다.' 이런 거 말입니다.

벌써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알겠지만 이 몸에 든 의식 자체들이, 모습 자체들이, 생명 자체들이, 내가 모든 것을 '나와 너와 둘이 아니다' 그러곤 한마음으로 이렇게 해 준다면, 한 회사에서 "회장이나 사장이나 공장장이나 전부 우리는 한 도반으로서 한 식구다. 그러니깐 이렇게 벌어서 우리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이런다면 아, 누가 뭐랍니까? 누가 싸워요? 그러면 내 몸 안에 든 의식들이 파워를 일으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파워를 일으켰다가도 그렇게 다 한마음으로 놓는다면 거기에서 '어, 난 죽을 수 없어.' 이럽니다. 왜? 자기가 자기 죽일 순 없거든, 자기니까. 곧바로 자기니까. 그렇게 수효가 많은 이름을 가졌는데도 전부 자기야.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 죽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때는 그냥 얼굴을 시커멓게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여러 분 보죠. '에이, 저건 마음 한번 돌리면 저 속에서 전부 의식들이 그냥 한마음이 돼주어서 파워 일으켰던 것 다 원활하게 만들고 또 세포가 부패됐던 것이 모두 원활하게 되면 저 얼굴이 그냥 뽀얗게 하얗게 될 텐데.', 허허, 이렇게 아쉬운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고 상대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나지 않고 무슨 부처가 필요 있고, 무슨 이 세상이 필요 있고, 상대가 필요 있고, 사랑이 있으며 의리가 있고 도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또 한 가지 말해 볼까요. 아까 얘기했죠. '오로라'라는 의식과 안에서 일어나는 것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 바깥에서 바로 자력으로써 밀어내고 당기고 하는 그것과 또 방어를 하는 그런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이랬죠. 그러면 그 방어를 하는 거는 두뇌에서 모든 걸, 안에서 일어나는 거 바깥에서 일어나서 들어오는 거를 연방 제시한다고 그럴까요? 통신한다 그럴까요? 그러면 안에서 일어나서 막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것도 영계의 문제라든가 세균의 문제라든가, 유전의 문제라든가 업보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이것과 대동소이하다 이겁니다, 작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치이느냐, 여러분이 승리하느냐의 문제가 그대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성이 없으면 진리라고 이름도 안 붙었을는지도 모르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용도에 따라서 항상 너하고 나하고 나눌 때가 있다면 또 같이할 때가 있고, 유능하게 지혜 있게 굴려야 될 텐데 그거를 아차, 수습을 못 하면 그 지경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고걸 잘 생각을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 나 보세요. 내가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잘못됐을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하다가 가면 가고 말면 말지 하는, 아예 그냥 다 버렸기 때문에 이만이라도 하지 만약에 버리지 않았다면 되게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고난이 한, 일 초에 그냥 막 나한테 다가왔다고 합시다. 그거를 아주 무겁게 놓고 기다리시고 지켜보셔야지 만약에 그걸 지켜보지도 않고 그냥 방방 뛴다면 아주 어지러운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거기다 놓고 그냥, 모든 것을 거기 맡겨 놓고 있으면 스스로서 그냥 굴려져서 스스로 평화스러운 게 옵니다, 가정에도 모든 게.

그런데 주인공을 좀 발견했다고 하는 분들이 어떤 땐 더 터무니없이 야단법석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더 못됐어요. 오히려 거기서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말입니다. 이건 발작을 일으키는 거야, 응? 자기가 어떡하나 볼 양으로 그러는 거를 거기 속아 가지곤 자꾸 일어나니까 그거는 안 하니만도 못 하고, 옆의 사람들 고통만 주게 되고 자기가 고통스럽고 외려 명주 올이 전부 묶여 돌아가게끔 만든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묶이면 보이지 않는 데서 풀어야 할 텐데, 보이지 않는 데서 오히려 묶어 놓는 형상이 된다 이겁니다.

이 부처님의 마음, 마음자리 골수를 보려면 여러분의 골수를 알아야 부처님의 골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그 마음의 도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부처님께서 일산 오백 개를 한데 합쳐서 삼천대천세계에 굴려서, 요리를 만들어서 보여 준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성신, 즉 말하자면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안이 궁이거든요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궁. 그 궁, 등(燈) 밝은 그 마음들을 밝은 거기에다가 한데 그냥 합쳐서 탁 주장자를 보여 주니깐 확 밝아지면서 대천세계가 그대로 잘 보이더라 이거죠. 여러분이 좀 더 그렇게만 가실 수 있다면 스스로 그 궁 안의 밝은 등을 그대로 볼 수 있고, 바깥이나 안이나 다 볼 수 있다. 머리로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보게 된다.

야! 봐도 도가 아니에요. 이거 보기만 한다고 뭐, 되는 줄 아세요? 보기만 해도 안 되고 갖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이래도 안 되고 또 이거 있다는 거 소리만 들어도 안 돼요. 도가 아니에요. 단지 이거를 (컵 받침을 가리키시며) 마음대로 들고 왔다 갔다 할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그 속을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서 왔나' 이거를 알아야 하고, 또 '이것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것도 알아야 하고, 그러고선 '요게 요렇구나' 하고선 요걸 갖다 주기도 하고 요걸 갖다 먹기도 하고 이래야 도예요. 예? 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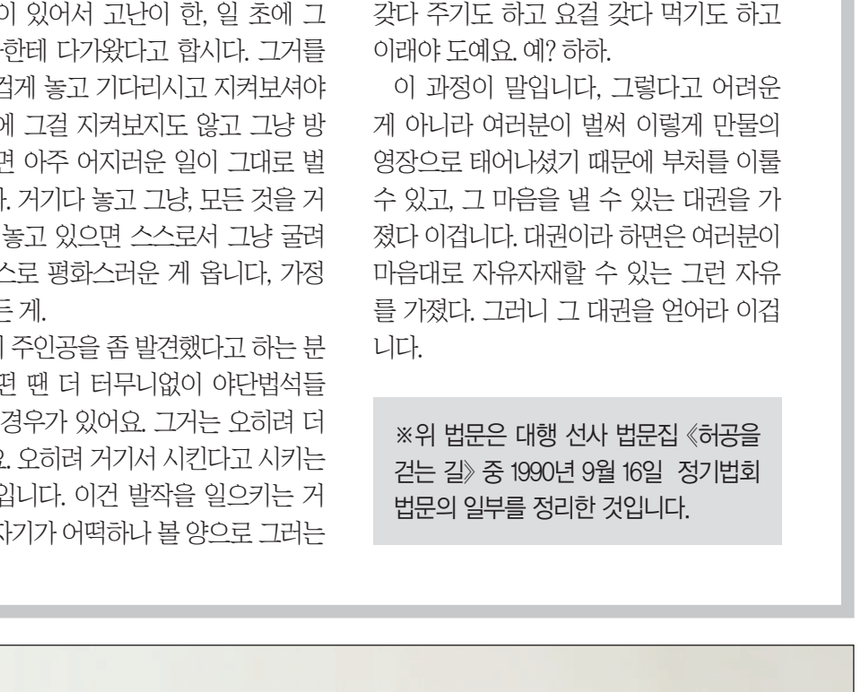
이 과정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벌써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부처를 이룰 수 있고,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대권을 가졌다 이겁니다. 대권이라 하면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졌다. 그러니 그 대권을 얻어라 이겁니다.

> 아주 진득하고 이 세상을 다 들어서 놓는 것처럼 무겁게
> 한마음 뜻으로다 놓는다면 이 세상이 흔들려도
> 여러분의 마음자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9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㊻ 육군비구를 제재한 부처님, 학교 폭력(2)

부모가 세워야 할 든든한 울타리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알았어요."

상담실을 찾은 중학교 2학년 희정(가명)의 말이다. 그는 1년 동안 집단 따돌림을 당하며 불안 증상으로 자해까지 했던 아이다. 무리 학생들은 희정이의 태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집요하게 지적하며 고치라고 압박했다. "제발 멈춰 달라"는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말을 따르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겠다는 은근한 위협이 이어졌다.

자해를 통해 상황이 알려지자 교사는 가해 무리와 희정을 분리했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학년과 반이 바뀌면서 상황은 다시 반복됐다. 가해 학생들은 무리를 지어 희정을 불러 세우고, 따져 묻는 행동을 계속 이어 갔다. 험담이 퍼지면서 희정은 학교생활에서 점점 고립됐고, 불안 증세는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희정은 극심한 불안으로 학교를 쉬며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했다. 조금의 안정을 찾자,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결심으로 학교폭력(학폭)을 신고했다. 하지만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답변은 '조치 없음'이었다. 사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증거를 모으기란 쉽지 않았고, 가해 학생들조차 아직 어린아이였기에 부모로서는 매몰차게만 밀어붙일 수 없었던 탓도 있었다. 혼란과 혼돈 속에서 마음을 다잡기 힘들었고, 결국 부모는 피해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에 일단 만족해야 했다.

제도가 보호하지 못한 자리에서 가족은 깊은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아이는 가족의 품에서 다시 숨을 고르며 의연함을 되찾았다. 상처 속에서도 사랑을 디딤돌 삼아 오히려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부모의 상처도 컸지만, 함께 버틴 시간이 곧 사랑의 증거가 되었고 그것이 아이에게는 치유였다. 환경전학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했지만, 희정이는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로만 여기지 않았다. 끝까지 자신의 편이 되어 준 가족의 지지가 아이를 다시 서게 만든 것이다. 가장 중요한 힘은 가족의 지지였다.

가족의 사랑이 가장 최우선이지만, 현실 속에서 마주한 학폭 절차와 조치들은 부모에게 여전히 막막한 과제로 다가오고 버겁다. 그럼에도 부모가 이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아이 혼자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이미 불안과 우울, 자존감 저하에 시달리고 있어 복잡한 절차와 증거 수집을 감당하기 어렵다. 부모가 대신 나서는 것은 곧 아이의 안전망을 확보해 주는 일과 같다. 또 제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자 역시 부모다. 신고와 심의, 재심,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미성년자인 아이 대신 부모가 법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가 이 같은 절차를 밟는 모습은 아이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가해를 당했을 때 부모가 지켜 줬다는 경험은 이후

학폭 절차 속 아이 지키는 부모 지지
육군비구, 피해자 보호 책임 일깨워

삶에서 강력한 회복탄력성이 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대응은 피해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제도의 변화를 촉진한다. 부모가 문제를 끝까지 제기해야 학교와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길이 열린다.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화 내용이나 상처 사진, 메시지 같은 증거를 기록해야 한다. 학교에 신고하면 조사와 함께 분리조치 등 임시 보호가 가능하며, 반복적이거나 보복 정황이 있으면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진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행정심판(90일 이내)이나 행정소송(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으로 다툴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은 경찰 수사도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 절차는 길고 복잡하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 측이 증거를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조치 없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는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다. 제도가 존재하지만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럼에도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부모의 지지와 동행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부모가 감당해야 할 막막함을 덜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신고센터(117)를 통해 즉시 경찰과 연결할 수 있고, 정서적 위기 시에는 청소년전화(1388)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행정심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전담경찰관(SPO) 역시 중요한 도움 창구가 된다. 민간 차원의 지원도 있다. 푸른나무재단(구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피해 학생과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법률 지원,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 상담센터와 연결돼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부처님 당시에도 공동체 안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이 있었다. '육군비구(六群比丘)'라 불린 이들은 수행을 저버리고 무리를 지어 다니며 다른 스님들을 괴롭히고 공동체의 화합을 해쳤다. 결국 대중은 이들의 행태를 부처님께 알렸고, 그때마다 부처님은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계율을 제정하셨다.

이처럼 피해자를 지키는 태도는 오래전부터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학교와 사회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든든한 지지가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 피해자가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건강 365

㊼ '런너스 니'와 '점퍼스 니'

런닝 전 스트레칭·준비운동 철저히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인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주말마다 열리는 마라톤 대회, 직장인 러닝 동호회, 개인 기록을 목표로 하는 아마추어 러너까지, 러닝은 이제 특정 운동 마니아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시작하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러닝의 인기가 높아진 만큼, 무릎 통증과 같은 부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런너스 니(슬개대퇴통증증후군)'와 '점퍼스 니(슬개건염)'는 러너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과사용 손상이다.

'런너스 니(Runner's knee)'는 의학적 용어로는 '슬개대퇴통증증후군(patellofemoral pain syndrome)'이라고 부른다. '슬개대퇴통증증후군'은 무릎의 전방부 통증(anterior knee pain)을 일으키는 넓은 범주의 질환을 가리키며, 여러 원인이 존재한다.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추벽 증후군(plica syndrome)'이 있다. 추벽은 태아 때 형성되는 무릎 등 관절 내부의 얇고 부드러운 막 주름을 일컫는다. 성인이 됐을 때 대부분 사라지지만, 드물게 일부 성인에 남아 반복적인 무릎의 자극으로 인해 두꺼워지거나 염증을 일으키게 될 때 '추벽 증후군'으로 불리게 된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무릎 전방부에 존재하는 '슬개하부 지방체(infra patella fat pad)'에 의해 '슬개대퇴통증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실제 무릎 내부의 통증을 잘 느끼는 구조물은 대부분 무릎 앞쪽에 있는 지방체라는 조직이다. 지방체 내부에 통증 수용체가 풍부하므로 통증이 대부분 무릎 앞쪽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무릎 전방부 통증 중 러닝 거리나 빈도를 갑작스럽게 늘렸을 때 발생하며, 허벅지 앞뒤 근육의 불균형, 잘못된 러닝 자세, 무릎 정렬 이상, 또는 신발의 쿠션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증상의 특징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은 뒤 일어날 때, 혹은 오래 앉아 있다가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진다는 점이다. 방치하면 통증이 점차 심해지고 운동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지방체 내부의 염증이 심해진다.

'점퍼스 니(Jumper's knee)'는 무릎 아래쪽 힘줄(슬개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점프와 착지를 반복하는 운동에서 잘 나타난다. 무릎 전방에 존재하는 슬개골의 경우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데 있어 도르래 역할을 하며, 슬개건과 대퇴건의 경우 이러한 도르래를 움직이게 하는 노끈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무릎의 움직임, 특히 강한 힘으로 무릎의 움직임이 생기게 된다면 힘줄의 부착부에서 견인손상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힘줄부착부의 미세파열이 발생하게 된다. 농구나 배구 선수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러닝에서도 내리막길 달리기, 무리한 인터벌 훈련, 갑작스러운 페이스 증가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초기에는 운동 시작 시 통증이 나타나고 몸이 풀리면서 완화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게 된다.

추벽과 슬개하부 지방체, 염증 야기
반복적 강한 움직임 미세파열 유발
휴식과 냉찜질, 물리·약물치료 도움

이러한 과사용 손상은 이름 그대로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발생하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러닝 전후로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뒤쪽의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둔근)을 충분히 풀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러닝 거리와 강도는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주당 러닝 거리를 10% 이상 급격히 늘리지 말고, 회복 일을 포함한 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 근력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 허벅지, 둔근, 코어 근육의 강화가 필수다.

통증이 이미 발생했다면 무리해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초기에는 1~2주간 휴식하며 얼음찜질을 하고, 필요 시 물리치료나 테이핑을 병행하면 좋다. 통증이 줄어든 뒤에는 원인을 분석해 러닝 자세 교정, 근력 불균형 해소, 신발 교체 등을 고려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와 예방에도 동통이 지속된다면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통해서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추벽이 과하게 두꺼워져 주변 연골에 결손을 일으키는 경우나, 슬개건의 심각한 파열이 동반된 점퍼스 니의 경우는 드물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증상이 악화될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검사가 필요하다.

러닝은 심폐 건강 향상, 체중 관리,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이점을 주지만, 무릎이 건강해야만 그 즐거움을 오래 누릴 수 있다. 과사용 손상은 대개 초기 관리만 잘해도 회복이 빠르지만, 방치하면 만성화돼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러닝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기록 단축과 훈련량 증가에만 집중하기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무릎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시길 바란다.

건강한 무릎은 단순히 달리기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평생의 활동성과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이다. 오늘도 러닝화를 신기 전,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으로 무릎에 "준비됐어?"라고 먼저 물어보는 습관이 여러분의 러닝 인생을 길고 즐겁게 만들어 줄 것이다.



김상효
거인병원 관절클리닉 과장

거인병원 Geo-in Hospital
051)996.7000
사직야구장 앞
어깨·관절·척추·정형외과 중점진료
세분화된 진료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광고심의필: 230622-중-155173



문선애 마취통증의학과 | 박지혜 내과 | 이지욱 신경외과 | 이승준 대표원장 정형외과 | 민영경 병원장 정형외과 | 김상효 정형외과 | 염동헌 영상의학과 | 이정향 마취통증의학과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수술

전법 일기

진공과 묘유의 문

〈眞空〉 〈妙有〉

2022년 늦가을 문경 봉암사 선방으로 향했다. 살면서 문경은 처음이었고, 봉암사도 첫 계절이었다. 범어사에서 포교국장직 사표를 내고 걸망 진 채 금정산을 하산하는 발걸음은 가벼웠는데, 희양산을 다시 올라가는 발걸음은 조금씩 무거워졌다. 출가한 지 겨우 10년이 넘었는데, 갓 머리 깎고 회색 옷을 입었던 그때의 초발심 행자는 거울에 없었다. 모르는 새 스님이 직업이 돼 버린 나는 재출가한다는 마음으로 희양산 봉암사 태고선원의 문을 두드려야 했다.

많은 대중 스님들 사이에서 다시 초심자가 되고, 막내가 돼 첫 수선안거가 시작됐다. 뻐근한 허리는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지고, 하루 열 시간 정진은 금세 흘러갔다. 몸은 큰방 안에 머물러 있었으나 번뇌와 상념은 우주를 떠돌았다. 방선 시간에 마당에 나와 진공문과 묘유문 사이를 돌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고민의 파편들이 도시에 있었을 때보다 더욱 선명하게 검은 허공에 박혀 빛나고 있었다.

열 번의 수선안거를 선방에서 지내겠다고 결심했으니, 앞으로의 수행 성과는 첫 안거에서 얼마나 큰 보폭으로 나아가는가에 달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좌복 위에 앉을 때나 쉬는 시간 산행을 갈 때, 공양하러 선열당으로 향할 때, 화두 정진하며 집중이 흐려지면 호흡을 관찰하고 감정과 생각을 늘 살피며 깨어 있으려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살이 점점 빠져 갔다. 날카로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식사량을 더 줄였다. 거울 속 얼굴이 점점 내가 알던 얼굴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와중의 일이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어느 날, 힘없는 발걸음으로 공양하러 선열당으로 가기 위해 늘 지나가는 진공문을 지나는 길이었다. 처소에서 선열당으로 공양하러 가는 스님들은 모두 진공문을 지나 걸어가고 있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공양하러 가는 스님들은 왜 다 진공문을 지나가는 걸까. 처소에서 선열당 가는 길은 한 가지 길뿐인가. 처소를 나와 희양산 정상에 올랐다가 내려와서 선열당에 가면 그 길은 틀린 길인가. 진공문을 나와 선열당으로 가는 길은 몇 가지인가. 무한하다. 그리고 없다. 없어서 무(無)가 아니고 고정불변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공(空)이다.

봉암사에 처음 온 불자님이 "스님, 선열당 가는 길이 어딥니까?"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진공문 지나서 내려가다 왼쪽 길로 쭉 가십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무수히 많은 길이 있어 어디 길이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다수의 스님들이 진공문을 지나 선열당을 가는 것과 공양하러 갈 때는 진공문으로 다들 나가지만 예불하러 큰법당 갈 때는 법당에서 가까운 묘유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알았다. '진리는 공[眞空]하나 묘한 쓰임새는 있다[妙有]'는 말이 이 뜻이로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수행은 내 안의 그릇을 비우거나, 비어 있는 그릇을 알아차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수행의 깊이를 무엇으로 잴 것인가. 온화한 태도, 배려하는 말씨, 남을 위해 나의 불편을 감수하는 마음의 여유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무수한 진리가 무슨 소용이랴.



눌은 스님 전 범어사 포교국장



송마나의 **시절인연**

선의 사과

〈禪〉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내 한 입 베어 문다. 아삭하는 소리에 뜨거운 열기가 저만큼 물러서는 듯하다. 차갑고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번진다. 소백산 자락에서 자란 사과는 유난히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다. 사과 값이 올라 마음대로 사 먹지 못한 차에 지인이 보내 준 사과 한 상자를 아껴 먹고 있다.

사과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상상력과 운명을 흔들어 온 과일이다. 성경에서 하느님은 에덴동산의 모든 과일은 먹어도 좋으나 사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이브는 금기를 어기고 사과를 따먹은 후 아담에게 건넸다. 아담은 그 사과를 삼키다 목에 걸려 목울대가 불거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아담스 애플'이라 불렀다. 남성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 목울대가 도드라지고 유년의 맑은 목소리는 거칠게 변성된다. 성경 속 사과는 금단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아담스 애플'은 신이 내린 형벌일까, 아니면 금지를 어긴 자에게 남겨진 후회의 표식일까.

아이작 뉴턴(1643~1727)은 정원을 거닐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누구나 당연히 여기는 평범한 현상 앞에서 그는 질문했다. "왜 사과는 언제나 땅으로 떨어지는가?" 이 물음에서 출발해 뉴턴은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듯 사과 역시 지구를 같은 힘으로 끌어당긴다는 만유인력을 밝혀냈다. 뉴턴의 사과는 진정한 깨달음이란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숨어 있음을 일깨워 준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설립한 기업 '애플'의 로고 역시 사과를 형상화했다. 어린 시절 사과 농장에서 일한 경험에서 착안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러나 왜 온전한 사과가 아니라 굳이 한 입 베어 문 사과였을까.

잡스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입양아로 자랐다.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그는 방랑의 길을 걸었다. 대학을 중퇴하고 인도로 떠나 히말라야 기슭을 거닐며 명상에 잠겼고, 선불교의 사유에 깊이 매료되었다.

한 입 베어 문 사과는 더 이상 온전한 사과가 아니다. 그것은 상처 난 흔적이자 순간의 자취다. 모든 만물은 생겨나고 변화하며 사라진다. 세상은 무상(無常)하며 붙잡아 둘 실체는 없다. 사과의 상처는 덧없음을 드러내는 자취일 것이다.

또한 알고 싶고, 이루고 싶고, 남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이 한 입 베어 문 사과 안에 응축돼 있는지도 모른다. 사과를 베어 문 인간의 작은 입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브의 입이 낙원을 뒤흔들었듯,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세계를 흔들며 새로운 길을 열어 간다.

잡스가 만든 스마트한 디지털 기계는 인간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세상의 거리를 지우고 시간의 경계를 허물어 사람과 사람을 한 호흡으로 이어 준다. 우리는 손바닥 안의 작은 스마트폰을 욕망한다. 하지만 잡스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다. 그는 인도에서 깨달은 영적 통찰을 애플 로고에 불어넣었다.

"다른 사람의 소리가 여러분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마음과 직관의 소리를 따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입 베어 문 '선(禪)의 사과'는 묵묵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작가〉

기자칼럼

실천으로 빛 발하는 '백중'

백중은 부처님 당시 목련 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께 법을 청하고 대중에게 공양을 올린 데서 비롯됐다. 이 일화는 부처님 법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가장 수승한 공덕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백중은 오늘날까지 부모와 조상을 기리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보편적 가르침으로 전해진다. 죽음을 넘어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힘, 그것이 백중의 근본 정신이다.

올해 통도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도량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백중을 회향했다. 통도사에서는 종정 성파 대종사가 "아는 데 머무르지 말고 실천으로 회향하라"고 법문했고, 범어사는 90일 정진을 이어가며 쌀 4000kg을 이웃과 나눴다.

홍법사 등 여러 사찰도 릴레이 법문과 기도를 이어가며 부모의 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사찰마다 모습은 달랐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였다. 백중이 의례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불자들의 기도가 생활 속 자비와 나눔으로 변할 때, 백중의 공덕은 비로소 빛을 발한다.

회향의 중심은 경전 독송과 법문 청취다. 독송은 부모와 조상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수행이고, 법문은 그 은혜를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를 알려 준다. 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것은 살아 있는 부모를 살피고 가족을 존중하며, 더 나아가 사회와 이웃에게 자비를 나누겠다는 서원이다. 이러한 서원을 가슴 깊이 새긴다면 효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된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제시하는 '현대적' 효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부모를 돌보며, 공동체와 사회에까지 공덕을 회향하는 것. 백중 회향은 끝이 아니라 효와 자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는 출발점이다.

기도와 법문이 멈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이 새로운 회향의 무대가 된다. 작은 인사와 돌봄, 나눔의 실천이 곧 부모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요, 불교적 효의 완성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수계 서원, 포살 통해 지속되길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9월 1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동국대 '2025 영캠프(Young Camp)' 수계식 참가신청 접수가 시작 단 2분 만에 매진됐다고 한다. 올해가 2회째인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계를 받는 행위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수계식에서는 대체로 계목(戒目)을 설하고, 계를 받는 이가 계를 잘 지니고 지키겠다고 서원하는 다짐의 징표로 연비(燃臂)를 한다. 오늘날 연비는 대개 줄기 향에 불을 붙여 팔에 대는 정도지만, 예전 스님들의 연비는 밀초 액체에 담가 응고한 삼베 가닥을 'ㄴ'자 형으로 꺾어 세운 심지에 불을 붙여 살을 태웠다. 출가 의지를 다지는 징표로 작동했다. 연비를 통해 몸의 업장을 녹인다는 의미이자, 수계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수계의 핵심은 계를 받는 계사의 초청과 계의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화상아사리가 계목을 일러 주고, 계행의 실천을 일러 주는 교수아사리와 갈마아사리 스님을 비롯해 일곱 분의 증명 법사의 참석으로 계단이 완성된다.

속담에 '중[스님]이 혼자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 것은 삼사칠증의 스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사칠증은 붓다 당시 최소한의 승가 구성원의 숫자에서 나온다. 열 명의 스님이 있는 승가 집단만이 계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수계는 과거 정리·새 삶 의지 표현
출가 의지 다지며 업장 녹이는 연비
포살, 계 점검·불자의 길 실천 다짐

었다. 변방에서 열 명의 수행자가 되지 못해 수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붓다께서는 다섯 명이 수행하는 계에서도 수계를 해도 좋다고 허락하시게 된다. 수계식의 최소 조건은 이렇게 수계단이 꾸려지면서 시작된다.

다음은 계목이다. 먼저 삼귀계를 받는다. 첫째는 붓다를 믿고 의지처로 삼고 따르겠다는 것으로, 붓다 외의 다른 삿된 스승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서원한다.

둘째는 붓다의 가르침을 가치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것을 서원한다. 붓다의 가르침은 일체는 무상하고 일체에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일체는 고통이라는 세 가지 법인이나 일체는 고통 속에 있고, 그 고통은 다 원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며, 고통이 사라진 세계가 있고,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여덟 가지 바르게 길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스러운 붓다의 제자인 상가(스님)를 믿고 따르겠다고 서원한다. 이렇게 삼귀계를 받은 다음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을 괴롭히지 않고, 남의 것을 갖지 않으며, 삿된 이성 관계를 맺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술 등을 마시지 않겠다는 것 등 오계를 받아지닌다.

사실 수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을 매월 초하루 보름의 포살이라고 할 수 있다. 포살은 계를 잘 지켰는지를 점검하는 날인데, 오늘날은 포살하는 법회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사찰이나 단체 단위로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해서 포살하는 신행이 활발히 펼쳐지면 좋겠다.

공양을 올리고 계사와 수계자가 계목을 선후창으로 제창하며 불자의 길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포살을 통해 수계의 서원이 지속되면 바르게 불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정의로운 민주 공동체 구현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지난달 〈불교평론〉 창간 26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 다녀왔다. 주제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종교'다. 각 종교의 여러 학자의 발표를 들으며 전쟁의 발생과 종교의 역할에 대해 황망하고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 십자군 전쟁의 허구성과 탐욕, 가톨릭과 개신교의 30년 전쟁의 비극, 태평양 전쟁과 일본 불교의 태도, 한국전쟁과 그리스도교의 관계 등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오늘날 현존하는 종교들은 호모사피엔스의 역사에 비해 100분의 1도 안 되는 2000년 안팎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동안 종교 사상과 종교적 헌신으로 편협한 이기심을 초월해 고귀한 가치와 진리를 추구한 사례도 많다. 그러나 역사는 그 어떤 세력보다 종교의 이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를 어쩌랴.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니.

학술 심포지엄 자리에서 전쟁 억제와 평화 지향을 위한 종교의 역할 논의도 많이 제기됐다. 필자는 여기에서 전쟁 발발의 원인이 '보통 사람'들의 비도덕성이나 무도덕성에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소위 '잘난 사람들(집단)'의 탐욕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잘난 사람들은 대개 '잘못된 사회 구조'를 만들고 이를 보통 사람에게 최면시키면서 그들의 탐욕을 충족한다. 중

종교 이름으로 목숨 많이 잃어
전쟁 발발은 집단의 탐욕서 비롯
'보통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세의 많은 전쟁은 종교와 권력, 그리고 이권이 개입된 잘난 사람들의 싸움이었다. 그 싸움에 희생된 것은 착한 보통 사람이다. 많은 인류학자는 호모사피엔스가 여러 면에서 우수한 네안데르탈인을 누르고 현생 인류가 된 것은 그들이 지닌 '상호 부조'의 도덕적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라인홀트 니버의 저서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는 개인은 도덕적인데 왜 비도덕적 사회가 되는지 그 원인을 밝히며 '사회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윤리는 개인의 도덕성 못지않게 사회 구조와 기능의 도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 윤리는 사회 이념·제도, 정책이 사회의 도덕적 비전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따진다.

이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잘난 사람과 잘난 집단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사회 윤리적 과제가 나온다. 사회 윤리의 핵심 기초는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든 가장 바람직한 정치 형태로 평가받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도 중요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떤 곳에서도 완전한 형태로 실현된 적이 없으며 불안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이념'으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성패의 핵심은 바로 '보통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이 깨어 있으면 정의로운 민주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로운 민주 공동체 구현은 전쟁 방지의 제일 중요한 과제이다. 민주주의는 불교와 매우 친화력이 높다. 〈유행경〉에 있는 칠불쇠법(七不衰法)은 붓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불교와 정치의 관계가 펼쳐진 긴 역사 속에서 불교의 많은 치부가 숨겨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의로운 민주 공동체 구현은 한국불교의 짐이자 비전이다.

社 說

'세상을 위한 불교' 나선 50년
'미래를 향한 불교' 100년 되길

올해는 동국제강 창업주이자 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자 대원(大圓) 장경호 거사의 입적 50주기이자, 진흥원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다. 9월 8일 서울 다보빌딩 법당에서 열린 추모 및 기념 법회는 '세상을 위한 불교'를 발원한 대원 거사의 뜻을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대원 거사는 평생을 '산업보국'을 위해 정진했고, 일생의 결실을 고스란히 '불교 진흥'을 위해 희사했다. 일찍이 불법에 귀의한 그는 '사업에 종사해 크게 성공하고 모든 것은 대중을 위해 바치겠다'고 서원했고, 1945년 국내 최초의 민간 철강회사인 동국제강을 설립하는 대업을 이뤘다.

쌀 한 톨, 휴지 한 장도 함부로 쓰지 않는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도 불교와 사회를 위해서는 기꺼이 재산을 환원한 모습은 재가 불자가 실천할 수 있는 보살행의 전범(典範)을 보여 준다.

대원 거사의 숭고한 원력으로 설립된 대한불교진흥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설립 초기에는 종단과 단체의 주요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했고, 불교방송 설립과 운영으로 불교 정신을 전파하는 대중매체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에는 문화 콘텐츠 개발, 청년 불자 육성, 국제 포교, 명상 프로그램 확산, 디지털 전법 강화 등 직접 사업을 통해 불교적 가치와 사상을 사회에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행보는 불교의 가르침이 신앙의 차원을 넘어 삶의 철학이자 공동체의 문화로 확장됨을 여실히 보여줬다.

오늘날 한국불교는 출가자 감소, 신도 고령화, 종교 무관심이라는 삼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진흥원은 1975년 설립 취지문에서 "우리 불교는 오랜 잠에서 깨어나 어려운 국가적 현실을 직시하고 노력의 정법이념을 드높이 내걸어 국민의 정신생활의 지표가 되어야 할 때"라고 선언했다.

이는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유효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기념 법회에서 "불교가 다시 살아나면 자비심이 회복되고 보살의 삶을 따르며 삼업이 청정해져 육바라밀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듯, 불교는 지금 여기의 땅을 밟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진흥원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발전적 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불교적 가치를 담은 사회적 캠페인 확대와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 제시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포교·전법 방식의 다양화와 디지털 전환 및 AI를 활용한 포교 방안 제시, 국제 포교 활동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교가 시대와 동떨어진 종교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고통을 치유하는 실질적 해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심조만유(心造萬有),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대원 거사의 열반송처럼 불교 중흥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올해가 한국불교를 새롭게 일으키겠다는 대원 거사의 큰 원력을 불자들의 마음에 심어 그 뜻을 구현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9월 17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9월 17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9월 17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9월 17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메쉬 어싱(접지) 수행화

2025 신상출시

자연과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 지금 바로 느껴보세요!

- 특징 1 **뛰어난 통기성의 메쉬 소재** – 발이 숨 쉬는 듯한 쾌적함
- 특징 2 **맨발에 가까운 편안함** – 놀랍도록 가볍고 유연한 착화감
- 특징 3 **자연 통풍 구조** – 쾌적함을 극대화하는 설계
- 특징 4 **세련된 디자인** – 그레이 색상과 다크 그레이 솔의 조화



특별혜택 지금 구매하시면,

정가 80,000원 ⇒ **특별 할인가 65,000원**

어싱 효과를 더욱 높여줄 '어싱 양말'을 사은품으로 함께 드립니다!
(사이즈 : 225mm~280mm, 색상 : 미들 그레이)

하루 종일 답답한 신발 속에 갇혀 있던 당신의 발을 해방하세요.

'메쉬 어싱 수행화'는 맨발로 걷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발을 감싸는 부드러운 메쉬 소재는 뛰어난 통기성으로 언제나 쾌적함을 유지해주며,
놀랍도록 가벼운 무게는 당신의 발걸음을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땅과 나를 연결하는 '어싱(Earthing)' 기술로, 걷는 내내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1 벨크로 타입으로 편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 맨발로 걷는 느낌을 최대한 주는 3mm의 탄력있는 밑창으로 발 건강을 향상 시킵니다.
3 어싱 신발에는 가죽 인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발 감각에 익숙치 않은 분을 위한 것이니 필요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45,000원 (무료배송)
사계절용(생활방수) ※ 사은품 : 어싱 양말



100% 핸드메이드 연꽃 복전함

장인의 손길
복을 담는 그릇

청정한 연꽃의 기운과
복을 모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 **오동나무 원목** – 고급스러운 질감, 내구성 뛰어남
- **우레탄 금분 칠** – 오래도록 변색 없이 유지
- **복전함 & 박지문 양각** – 복을 모으고 지키는 의미의 상징
- **비밀 출금 구조** – 외부에서 절대 열 수 없음, 구입자에게만 안내
- **전용 출금 도구 제공** –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 제공

대형 (66cm×56cm×56cm) ⇒ **2,600,000원**
중형 (56cm×46cm×46cm) ⇒ **2,300,000원**
소형 (45cm 출시예정) ⇒ **1,900,000원**



복 전 함
설치사례
부산 관음사







'박지문(博地門)' 글씨 양각 새김



돈 꺼내는 도구

맷돌의 미학, 커피의 철학

밀스톤 맷돌 커피 그라인더
Millstone

불교박람회를 핫하게 만든 맷돌커피

수동 압착식 원두 분쇄, 고흥석·오석이 빚어낸 원형의 미학과 기능성



~~정가 1,800,000~~ ⇒ 할인가 1,400,000 | 특판 보급가 | ~~정가 2,000,000~~ ⇒ 할인가 1,600,000

- **고흥석** 원석 : 약 13.1kg
- **오 석** 원석 : 약 14.1kg
- 크기 : 헤드 지름 16cm×받침 지름 26cm×높이 27cm
- 수동 회전 압착 분쇄 방식
- 반영구적 내구성 – 최고급 수공예품
- **국내 기술 특허 및 국제 기술 특허 등록**



핸드드립 애호가와 홈카페 유저를 위한
'한 잔의 철학'을 담은 맷돌 그라인더

패키지 구성품
맷돌 본체, 커피 수납용 컵, 전용 브러시, 맷돌 손잡이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